

제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공모전

자료집 순서

1부 토론회 진행 순서	002
2부 시상식 진행 순서	003
개최배경	004
공모전 주제와 응모방법	006
심사평	009
수상자명단	021
공모전 수상집 발간 및 향후 계획	025
수상작	
글부분	
더불어상	027
인권상	037
아이디어상	057
희망상	080
그림 부분	
더불어상	
인권상	
아이디어상	
희망상	
참교육학부모회는	

제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토론회 진행순서

1부 토론회 ‘벽을 넘어, 인권으로’

사회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발제 1. 학부모가 바라보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

- 박부희 (학부모 상담실)

발제 2. 학생이 바라보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

-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 네트워크 활동가)

토론자

-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 박철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 류형경 (청소년)

제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진행순서

2부 시상식

사회 |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인사말

-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참교육학부모회가 걸어온 길(영상자료)

심사평 및 소감

- 채풍묵 (시인, 교사)

공모전 시상

공모전 작품 발표

소감발표

다과

폐회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공모전

인사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입니다.

<제 5회 가고 싶은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공모전 시상식에 부쳐>

가고 싶은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공모전’을 시작한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2008년 공모전 주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좋은 학교, 좋은 교육’작품전 (부제- 벽을 넘어 인권으로) 이었습니다. 공모내용으로는 체벌과 왕따, 폭력이 없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맺기에 대한 내용과 아이디어, 학생 자치와 학생참여, 시험과 성적에 대한 청소년들이 생각 등 학생 인권에 대한 모든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회가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학부모 상담실을 통해 들어오는 상담사례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학교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로 인해 일차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며 학부모와 교사 또한 차원을 달리하고 있지만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문제를 직접적 드러내어 우리교육계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보급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 3회 까지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 졌던 공모전을 4회 부터는 학부모, 교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공모전은 2007년에 비해 다소 부진합니다. 일단 응모 작품수가 적습니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학습, 초등학생까지도 밤 11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경쟁 강화 교육이 청소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학교 공부만도 벅차서 시험공부 외에는 다른 관심과 고민을 기울여볼 엄두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유나 시간, 기회도 없습니다.

학교별 성적공개로 학교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는 별점제도가 강화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이나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어김없이 권고 전학이나 퇴학이라는 ‘학생 퇴출’제도가 강화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말 잘 듣는 좋은 학생들만 가르쳐서 ‘명품 학교’를 만드는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회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2008년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후퇴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2008년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은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과 토론회가 우리학생들이 처해 있는 학생인권상황 대해 함께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 하는 것이 학생인권입니다. 학력신장, 학력 경쟁이 학생인권보다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윤 숙 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공모전 주제와 응모방법

2008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제5회 가고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주제 : 벽을 넘어 인권으로

■ 응모내용

- 체벌·단체기합·언어폭력·성폭력 없는 학교가 되기 위한 교사와 학생간에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및 아이디어
- 학교 내 왕따·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실천 사례 및 해결 방안
- 용의복장(두발·교복자유)과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메시지, 사회에 전하고 싶은 내용
- 학교자치(학생회·학생동아리)활동 활성화에 관한 실제 사례 및 대안제시
- 학칙제정과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참여에 대한 생각과 의견
- 강제학습(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의견
- 시험·성적에 관한 생각과 의견
- 기타: 인권에 관한 모든 주제

■ 응모기간 2008년 11월 21일까지

■ 참가대상

개인(초·중·고교생, 청소년, 학부모, 교사)

단체(동아리, 어린이회, 학생회, 기타자치기구)

■ 응모분야

영상(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사진), 그림(포스터, 만화), 글(수필, 시, 주장글)

■ 응모방법

- 플래시 애니메이션: 700 X 530 픽셀, 런닝타임 1분 30초~5분 이내, 해상도 72 dpi이상, 'swf'로 저장한 CD제출
- 동영상: 런닝타임 10분이내, 출력크기 320 X 420, CD제출
- 주장하는 글·수필: 원고지 10매 이상 분량으로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시: 제한없음,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그림, 만화, 포스터: 제한없음, 원본이나 CD(jpg파일)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e-mail 접수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이메일: sangdam310@empal.com

■ 입상작발표

2008년 12월 10일까지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시상내역

영상, 그림, 글 3개부문

- 교육공동체상(학교, 학급동아리, 학생·학부모·교사 협동작품) 1개(총1개)
: 상장 및 70만원 상당의 상품
- 더불어상 각 부문별 1개(총3개): 상장 및 40만원 상당의 상품
- 인권상 각 부문별 3개(총9개):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아이디어상 각 부문별 5개(총15개):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희망상 각 부문별 10개(총30개):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상: 시상식 참가자 전원(기념품)

■ 시상식

2008년 12월(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참가자는 반드시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부모님연락처 포함), e-mail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참가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 귀속됩니다.

·국내외 미 발표작이어야 합니다.

·해당부문 수상작이 없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신문

■ 문의: 02-393-8900

심사평

■ ‘시’ 부문 - 채풍묵 (시인, 대원고등학교 국어교사)

가고 싶은 학교 공모전이 올해로 5회째이다. 공모전이 해를 더하면서 조금씩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글, 그림, 영상이라는 세 부문 응모부문을 유지하면서 부문별로 시와 수필 그리고 사진 등 세부적인 장르를 더욱 확대하였다. 한편 4회부터는 응모 대상도 학부모와 교사까지 넓혀 보다 폭넓게 이 시대의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시도를 하였다. 작년에는 그런 의도만큼 의욕적인 작품도 많았고 응모 지역과 연령층이 다양했었다.

그러나 올해의 응모작 특징은 몇 가지 깊은 반성을 동반한다. 먼저 글 부문 전체 응모작 252편 중 대부분이 특정 지역과 단체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특정 문예교실이나 특정 학교의 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응모한 것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그 외 지역의 응모 편수가 적었다. 자연히 지역과 연령층 편중은 해소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편중과 함께 응모된 글을 장르별로 나눠보면 운문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치 초등학생들의 동시 경연장이 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공모전 주제에서 벗어난 작품들도 상당히 있었다. 아마도 문예교실 학생들이 평소 습작품을 함께 공모했기 때문인 듯했다. 예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토의한 결과 공모 주제를 벗어난 것들은 이 공모전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비록 작품의 완성도는 높을지라도 주제에 합당하지 않은 작품들은 예심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었다.

산문들 역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 즉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나열이 가장 큰 문제였다. 심지어는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응모한 작품들도 있었다. 그리고 주장만 있고 뒷받침이 없는 글도 상당수였다. 논리적인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이 목소리만 높여 문제 제기나 비판에

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인가, 왜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개선하려는 대안은 무엇인가 또한 제시하는 대안은 어떤 면에서 타당한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짚어 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공모전을 통해 모색해 보려는 바이다.

논리적인 글 외에 산문은 소설처럼 긴 창작물을 시도한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분량이 많은 부분에 도전한 의욕도 높ی 살 수 있거니와 그 수준도 상당했다. 이 점은 올해 투고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위안이었다.

글 부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상’의 김서현, 반세희의 「답싸움」은 고1 학생들이 쓴 소설로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소재도 특이하거나 무리 없이 끌여가는 글 솜씨가 믿음직했다. 그러나 답싸움을 통해 경쟁에 내몰린 이 시대 청소년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다면 좀 더 소설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그리고 주인공 답이 치열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설득력이 부족했다. 또한 ‘답싸움’ 소재가 소설뿐 아니라 동화 등에서도 다루었던 만큼 읽으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답싸움이라는 비유를 통해 나타내 보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끌어가는 소설적 완성 면에서 주제 형상화와 표현력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이런 점은 한편으로 전체 응모작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드라지는 행운도 따랐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상을 수상한 작품들 중 김재철의 「거인과 난쟁이」는 초등학생다운 재미가 있다. 기교도 살아 있다. 그 재미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거인과 난쟁이로 비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품 말미의 부분, 즉 선생님과 엄마가 닮았다는 발상의 유쾌함에 있다. 그 부분이 압권이라 생각한다. 노현덕 외 3인의 「학교라는 여항 속 물 비우기」는 주장하는 글이다. 아마도 모둠 토의가 바탕이 된 단체 글쓰기 활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가 다양하고 사고의 깊이도 있다. 아쉬운 점은 단체 글쓰기인 만큼 토의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각자가 조사하고 찾은 분야에 대한 자료 제시가 분담이 되어 나타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전체적인 짜임도 단락별로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하영의 「칭찬의 힘」은 문제 학생의 모습과 생각이 진솔하여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샀다. 그러나 아름다운 결론이지만 그 전환이 더욱 설득력 있게 그려져야 공감이 배가된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상투적인 메아리에 그칠 염려도 있음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박인자의 「화구박스를 들고 나선 길」과 조원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

실적인 대안」은 학부모와 교사의 글이다. 사실 심사위원들로서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어른들의 글을 초등학생과 함께 심사할 때 어떤 잣대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일반인의 응모 편수도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작품 자체도 동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당 수준이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점은 또 그대로 주관 단체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번만큼은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과 어우러져 좋다는 혼쾌함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박인자 님의 시는 본격적인 성인시로 볼 때 전체 구도가 산만한 면이 있다. 표현도 더 다듬고 싶다. 그러나 작품 후반부로 가며 생각의 전개가 좋다. 나와 길을 발견하는 장면이 작품을 살리고 있다. 조원표 선생님의 글은 현장에서 겪은 학생 사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매우 다양하게 제시해 준 점이 좋았다. 현장에서의 노고에 고개 숙여진다. 그러나 제시한 대안 속에 피상적인 나열은 없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제안을 하다 보니 구체적 방안으로 보기에 미흡한 항목도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김태현의 ‘시험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아이를 망친다’는 주장글은 초등학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에 공감이 갔다. 또한 주장을 표현하는 논리성도 초등학생으로서는 쉽지 않은 전개를 했다고 생각한다. 권정현 외 3인의 ‘우리는 학생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예요’라는 주장글도 역시 단체 글쓰기였다. 앞서 단체 글쓰기로 응모한 학생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덧붙일 것은 이들의 글은 작은 소재목별로 내용 전개를 했는데 그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두발, 체벌, 사교육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나열이 개성 없이 백화점식이라는 인상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다. 반면에 김태균의 ‘두발 규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그 부당성을 과학적 근거와 법적인 근거 그리고 자신이 겪은 사례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집중력이 있었다. 안준영의 ‘학교, 단지 성적만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는 여러 주장글 가운데서 논리적인 전개력이 가장 안정감이 있다.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전형적인 논술 형태이다. 주장하는 사고 형태도 그렇다. 그러나 아직 중학 1학년인데 이런 점은 득과 실을 동시에 갖고 있다. 논술학원식의 전형적 형태를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먼저 키워가는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주장 글인 김성규의 글도 위의 조언을 참고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승준의 글은 문장 흐름과 내용이 단조로운 면이 있다. 반면에 사용한 어휘가 초등학생으로서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좋기도 하고 한편 심사위원들의 고민이기도 했다. 강병윤의 시 ‘엄마가 빨랐다’는 “붉은 비 내리”는 혹은 “소나기 쏟아진다”는 비유가 시험이라는 소재와 적절하게 어울린다. 전체 전개도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그런 비유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썼던 비유와 유사하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의 상황도 작위적인 느낌이 있다. 좀 더 자신만의 독

창성이 살아 있는 진솔한 글을 쓰면 그 재능이 더욱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은의 ‘사랑의 매’는 화자의 내면적인 심리 포착이 뛰어나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상투적인 결론과 표현이 아쉽다. 김예인의 ‘조희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솔직하고 담백한 생각과 행동이 공감이 간다. 점차 생각을 키워서 더 깊은 사고력을 지닌 시를 쓰는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 외에 희망상 수상작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 가운데 성미량의 소설 작품에 대해 말해본다. 그의 소설은 읽으며 마치 인터넷소설을 보는 듯 한 생각을 했다. 등장인물이 구사하는 대화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섬뜩할 정도였다. 글을 쓴 분량도 대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였다. 심사위원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내내 불편한 느낌도 함께 가졌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단순히 그 소설이 품은 내용이 어두워서만은 아니다. 아마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욕과는 달리 소설적인 미학을 고려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강약이 있어야 한다거나 절제와 표출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따위의 일들이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그런 방법론은 알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노력해 보기 바란다.

정해진 수만큼 상을 선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품의 우열이란 어쩔 수 없는 선긋기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나름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자신만의 훌륭한 작품이다. 그런 면에서 작품성과는 별도로 응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모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 이 공모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 ‘그림’ 부문 - 이성수 (양오중학교 교사, 만화가)

명색이 만화가라고 해서 그림, 포스터, 만화 부문의 심사위원을 맡기는 했지만, 사실 잘 모른다. 어떤 그림이 이래서 좋다. 어떤 그림은 이래서 나쁘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여러 학생들의 그림을 봤고, 또 심사를 했다. 내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다. ‘좋은 그림은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

‘왕따 없는 학교’, ‘상처 없는 학교’를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주문에 많은 학생들이 ‘왕따’를 그리고, ‘다툼’을 그리고, ‘폭력’을 그렸다. 하지만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안에 그린 사람의 어떤 ‘느낌’을 담아낸다는 것.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해주는 것’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능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그런 좋은 그림들을 찾으며 내내 눈이 즐거웠고, 당선작을 고르는 데에 즐거운 고민을 했다.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작품을 응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을 함께 전한다.

더불어 상

더불어상을 차지한 경남 애니메이션고 2학년 이선경 학생의 작품은 만화다. 만화를 전공하는 학생답게 작품의 전개 방식이나 묘사가 매끄럽다. 작품을 그리면서 들인 공이 만만치 않게 느껴졌다. 작품에 들인 품과 거기서 빚어진 작품 수준이 다른 응모작에 비해 월등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작품 자체에 대해 좀더 요구를 하자면, 대상에 대한 탐구를 좀더 밀고 나가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것.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 자신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일 것이다. 하지만, 왕따 문제는 왕따 피해자 한 사람이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왕따 피해학생을 둘러싼 주위 환경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의 심경 변화 이후로 달라지는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쉽다. 또한,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는 절박하고 인상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인공의 내면세계가 주고받는 고민들이 좀더 치

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기를 바란다.

인권상

인권상을 받은 김사랑 학생의 작품 역시 ‘왕따’를 소재로 한 만화다. ‘다가서다’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왕따 처지에 놓인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주인공의 마음가짐이 왕따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사랑 학생은 평소에 만화 그리기에 공을 많이 들였던 학생인지 그림의 구도, 칸의 배치가 안정적이다. 인물을 묘사한 펜선도 매끄럽고 자연스럽다. 일반 인문계를 다니면서 이 정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 하지만, 기성 만화 작품의 그림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왕따’라는 소재를 주인공의 경험에서 이끌어내어 해법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생동감있다.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구호로 ‘왕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겪은 경험으로 접근함으로써 ‘왕따’라는 소재를 실감나게 다루었다. 하지만, 갈등의 해소 방식 측면에서는 다소 손쉬운 선택을 해서 막바지에 약간 김이 섰다. ‘왕따’라는 처지에 놓여 있던 학생이 과연 주위의 호의적인 인사 한 번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엔 ‘왕따’를 겪었을 학생의 마음 속에는 불신의 벽이 두텁지는 않을까? 그런 망설임이 남는다.

인권상을 받은 김토담 학생의 포스터는 ‘흑인전학생에 대한 희생’이라는 다소 긴 제목을 달고 있다. 흑인의 피부를 가진 학생이 전학생으로 오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받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마치 총알과 같이 그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잘 분할된 화면과 독특한 구도 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한 화면 안에서 흑인 전학생이 쓰러지는 과정을 그려넣은 장면은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기법을 보는 듯 해서 한 번 보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또한 소재의 측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법 하다. 학교에서의 인권을 다루면서도 사회적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점이 돋보인다.

인권상을 받은 중동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협동작품(이찬영 외 9명)은 학교의 모습이 재미나다. 능숙하게 잘 그려진 그림은 아니지만, 4절지 세 장을 이어 붙여 만든 큰 화면 안에 빼곡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담으려 애쓴 점이

좋다. 작은 종이를 오려붙인 학교 울타리 안에 선생님들이 환한 표정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 여기저기에서 각자 자기 할 일에 분주하다. 이 그림을 함께 만들었을 아이들의 고심하는 표정이 그대로 떠오를 듯 공을 들인 작품이다. 게으름과 잔피를 부리지 않고 땀을 쏟아 만들었을 성실한 작품에 박수를 보낸다.

아이디어상

매화초 3학년 박예준 학생의 그림은 옛날 김홍도의 '서당'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매를 때리는 선생님의 얼굴과 그 매를 맞는 학생의 얼굴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도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다. 비록 사인펜으로 그려서 선이 거칠기는 하지만, 화면 가득히 그 장면의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다. 때리는 선생님과 매맞는 아이의 얼굴표정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다 설명될 정도다. 거기에 말풍선을 집어넣어 '사랑의 매'를 맞는 아이의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과연 그렇게 될까하는 생각까지 하도록 만드는, 비꼬는 듯한 맛까지 더했다.

창북중 2학년 성치민 학생의 작품은 중학교 남학생들이라면 으레 여러 차례 겪었을 문제 상황에서 출발한다. '작은 운동장' 그리고 그 운동장을 둘러싼 권력 다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늘 선배들에게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권과 축구공을 빼앗기고, 구박받아본 심정은 그 또래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떠올리기 힘든 일. 어른들에게는 낯선 감정일 수 있지만, 운동을 즐길 한창 나이 학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박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요구에서 '인권'이라는 말의 거창함에 짓눌리기 쉬운데, 성치민 학생은 그 '인권'을 소박한 차원에서, 자신이 몸소 겪은 일상에서 찾아냄으로써 '인권'이 그리 무겁지 않은, 생활의 작은 권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낸 좋은 사례다.

구암초 6학년 오종석 학생의 작품은 도시 안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학교 운동장이 작아서 100미터 달리기 측정이 불가능하던 학교를 다녀본 어른들이라면 오종석 학생의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50미터 달리기 측정도 운동장 대각선으로 뛰어야 가능한 시대다. 공부 이외의 것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사회적인 무관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은 나날이 줄어만 간다. 공부만 잘하

면 과연 운동장은 작아도 상관없는 것일까? 마음껏 뛰노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이란 느낌은 그저 허황된 것만은 아닐까? 오종석 학생의 운동장에는 그런 무의식적인 질문이 숨겨져 있다.

이우학교 오민주 학생의 ‘붕어’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초등학교의 일기에서 따온 글과, 자유롭게 헤엄치는 붕어의 그림은 돋보였지만 자기만의 새로운 해석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다른 사람의 글과 그림과 생각에서 얻어온 아이디어를 자기만의 것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부분이 없다.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발견했으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질 못했다고 할까? 정작 오민주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였을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설명글에서 그런 생각을 찾을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 안에 그런 의도를 설명이 아닌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다. 좀더 시간을 들여 고민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좋은 그림이란 무엇일까? 그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는 사람에게 인상 깊게 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왕따 문제를 그린 매화초 3학년 박정민 학생의 그림은 돋보였다. 다른 학생들이 왕따를 소재로 그리면서 그저 외따로 떨어진 채 울상을 짓고 있는 학생들을 떠올려 그리는 데에 그쳤다면, 박정민 학생은 왕따의 느낌을 절묘하게 그려냈다. 허공에 뜬 커다란 어항 안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둘러싼 어항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파랑 선으로 테두리 쳐져 있고 다른 아이들은 도무지 그 어항을 쳐다볼 줄 모른다. 왕따의 느낌을 이토록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희망상

고창중 3학년 김원민 학생의 그림은 가슴이 아프다. ‘잘려나간 머리카락, 잘려나간 학생인권’이란 구호 가운데에 머리를 자르고 있는 교사와 머리를 잘리고 있는 학생의 모습. 실제로 지켜보았던 장면을 그린 것인지, 그림 속 인물의 자세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학생의 잘려진 머리카락이 검게 칠해져 있는 바닥은 마치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처럼 시커멓다. 비록 색칠 같은 표현 수법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 시커멓고 답답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매화초 1학년 김민아 학생의 작품은 언뜻 보아도 답답한 느낌이 전해진다. 분명 하늘색 바탕에 분홍빛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는 인물들이 보이지만, 그림을 쳐다

불수록 답답하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왕따를 겪는 그림 속 인물의 마음을 실감 하면서 그린 것이 아닐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사람에게 푸른 빛도, 분홍빛도 그저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는 그림이다.

매화초 1학년 김용성 학생의 작품이 주는 재미는 등장한 네 인물의 얼굴 표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찾아냈다고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표정들이 네 인물의 얼굴 속에 담겨져 있다. 치켜올라간 눈썹과 굳게 다문 채 휘어진 입술, 그리고 매섭게 노려보는 눈동자까지. 김용성 학생의 그림은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다.

매화초 3학년 이신영 학생의 그림은 ‘인권’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냈다는 점에서 좋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한다는 것, 배려를 해야한다는 것 머리 속으로는 다 아는 것이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다 실천하고, 그걸 떠올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손을 다쳐서 글씨 쓰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를 돕는 마음. 그 마음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고,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이 좋다.

매화초 1학년 곽우진 학생은 얼굴을 한 번 보고 싶다. 작품 속에서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딱 곽우진 학생 자기 자신이 아닐까? 자기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청소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밉다는 마음이 잘 드러난, 뽀루룩한 얼굴 표정과 그걸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의 표정 그 대치가 아주 멋지다.

고창중학교 3학년 서동민 학생의 ‘다 보고 있다’는 요즘 시대의 풍속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를 고발하는 동영상도 여럿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세태를 잘 그려놓았다. ‘다 보고 있다’는 메시지는 짧지만 아주 강력하다.

경동초 5학년 장은정 학생의 작품은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라서 ‘성폭력’은 낯설고 조심스러운 소재일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를 수가 없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인물의 마음 자리에 일회용 반창고를 그려넣을 수 있는 배려가, 그 마음썹썹이가 좋다.

매화초 3학년 이도연 학생의 작품은 복도에서 벌받고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체벌하는 교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구도 한 가운데에서 검은 옷의

교사가 학생을 발로 차고 있고, 그 아래 한 학생이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다. 잘 짜여진 구도에 인물들의 인상 표정도 능숙하지만, 어딘가 틀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 아쉽다.

봉천초 4학년 박채원 외 4명의 협동작품 ‘상상의 천국’은 협동 작품이다. 다섯 명의 학생들이 각자 상상하는 학교를 그려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재미있다. 상상하는 학교의 모습이 저마다 달라 개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 좋다. 책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앞뒤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림의 표현기법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지중 김태균 학생 외 5명의 협동 작품인 ‘NO’는 포스터적인 기법을 아주 깔끔하게 쓰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그림체에 적절한 강조점까지 찍어서 한눈에 주제가 선명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전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주제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일까. 좀더 주제를 고심하면서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수상작들에게 대한 작품평을 마치면서 한 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다.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송파초 6학년 신수빈 학생의 그림에서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작품의 제목은 ‘하늘학교’ 학교 건물과 하늘을 그린 것이 전부인 소박한 그림이다. 그런데 그 그림의 설명에 붙은 말이 가슴 아프다. ‘건물에 가려지지 않은 하늘을 보며 공부하고 싶다. 하늘을 보며 공부하면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상처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가 되는 길은 사실 무척 소박한 데에 있다. 지금 당장 하늘이라도 실컷 볼 수 있는 학교라면, 학생들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소망을 생각하며, 작품을 응모했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행복하게 꿈꿀 수 있기’를 빌어본다.

■ 영상부문 - 김태환 (민중의 소리, 월간 말 기자)

이번 공모전 주제도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 가고 싶으신가요? 저라도 요즘 같으면 참 학교가기 싫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관련 뉴스들은 하나같이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제 한참 뛰어놀고 사회성을 배워야할 초등학생부터 경쟁과 입시의 한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일제고사로 줄세우기가 시작되었고 국제중학교 설립이라는 또 하나의 명문대 입학 진입로가 생겨버렸습니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선생님 열 분은 파면 또는 해임되어 교문 밖에서 눈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아야하죠. 물론 그 돈은 학부모들의 뚝입니다. “허리가 휠 지경이다”가 아니라 “허리가 부러져도 일을 해야 할 판”이네요. 심지어 여태 배웠던 역사교과서가 잘못되었다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나머지 수업을 들으랍니다. 대학에 들어간들 편안합니까? 당장 취업준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해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대출로도 모자라 휴학까지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거 어디 학교 다니고 싶겠습니까?

이번 5회 공모전에서 출품된 사진과 영상물들도 모두 이런 문제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인 책과 교재들, 칠판 한 칸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시험 일정들, 학원으로 학원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발걸음, 정작 학교수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학원으로 내모는 어른들, 어울려 살기 보다는 경쟁에 익숙해 생겨버린 왕따 문화... 하나 같이 표현된 것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가기 싫은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는 교육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어른들이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청장 같이 지체 높으신 분들에게 카메라를 쥐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쉽습니다. 지난해보다 출품작은 더 줄었습니다. 사진부문이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출품작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현실이 위와 같은데 톡톡 튀는 상상력과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심사평에 앞서 공모전과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고 혹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뜨고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는지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영상제작에 대한 강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하는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용방법은 쉬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따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열어 보세요. 물론 고가의 편집기도 필요 없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를 열어보세요.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간단한 작동법 교육만으로 누구든 영상물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만든 것을 혼자만 보시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보세요. 전 국민이 하루에 한번은 접속한다는 포털사이트에는 여러분의 영상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영상물과 사진은 그 순간 전 세계인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와 친해져 보세요. 카메라는 그저 빛을 담아내는 기계일 뿐이지만 찍는 사람의 마음이 전위되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찍는 사람의 보는 시각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도 가능하고 과장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카메라로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모든 영상은 찍고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것이니, 객관적이라고 믿지 마세요.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공모전

수상자 명단

(순서는 순위와 상관없습니다)

『교육공동체상』

없음

『더불어상』

글 부문 : 김서현, 반세희 (이우고 1) ‘닭싸움’

그림부문 : 이선경 (경남에니메이션학교 2) ‘도망’

영상부문 : 고유미 외 6명(창동고 3) ‘거울’

『인권상』

글 부문 :

김재철 (칠금초 5) ‘거인과 난장이’

노현덕, 김성민, 유병호, 이재민 (이우고 1) ‘학교라는 어항 속 물 비우기’

이하영 (충주여고 2) ‘칭찬의 힘’
 박인자 (일반부) ‘화구박스를 들고 나선 길’
 조원표 (일반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그림부문 :

김토담 (고창중 2) ‘흑인 전학생에 대한 희생’
 김사랑 (경희여고 2) ‘다가가다’
 이찬영, 은하현, 정유정, 김푸름, 이한, 정윤석, 노상우, 이준호, 강용우, 김유성
 (중동지역아동센터 저학년) ‘학교의 다양한 모습’

영상부문 :

한은비, 이상민, 전호원, 강주호, 이슬비, 이철수, 노한성, 김은정,
 윤두리한, 이진희 (제천 간디학교 2) ‘이유불문’

『아이디어상』

글 부문 :

김태현 (항도초 5) ‘시험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아이를 망친다’
 권정현, 박지원, 백이영, 오수은 (이우고 1)
 ‘우리는 학생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예요’
 안준영 (영흥중 1) ‘학교, 단지 성적만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
 김태균 (동지중 2) ‘두발규제- 진짜 우리를 존중한다면?’
 김성규 (용흥중 2) ‘내가 바라는, 가고싶은 학교는!’
 안승준 (부설초 5) ‘성적이 높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강병윤 (충일중 1) ‘엄마가 빨났다’
 김경은 (남산초 4) ‘사랑의 매’
 김예인 (성남초 3) ‘조회시간’

그림부문 :

오종석 (구암초 6)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박예준 (매화초 3)

오민주, 공준서, 이슬기, 김문정 (이우고)
성치민 (창북중 2) '우리는 약자다'
박정민 (매화초 3) '나를 왕따 시키지 마'

영상부문 :

류형경 (홈스쿨링) '퀴리와 함께한 일요일(Sunday with Curie)'

『희망상』

글 부문 :

류지현 (진만초 6) '왕따 없는 학교'
위예림 (남산초 3) '방학'
양진영 (탄금초 1) '우리선생님'
김승환 (남산초 4) '선생님'
김현민 (목행초 3) '우리반'
문예담 (국원초 5) '풍선'
서연우 (송파초 6) '구름, 덩블링 학교'
김령은 (남산초 4) '눈썹인 학교'
방소윤 (중앙초 4) '학교수업시간'
김기훈 (남산초 5) '숲은 또하나의 학교'
김진아 (목행초 5) '숲속교실'
이도권 (국원초 6) '마지막 잎새'
이홍석 (남산초 6) '떡볶이'
오승민 (목행초 1) '화장실'
김나희 (송파초 6) '조금 특별한 학교'
선홍준 (남산중 3) '강제학습 꼭 해야만 하는가?'
성미량 (창북중 3) '지.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이정우 (일반부) '입학사정관제- 점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자'

그림부문 :

김태균, 김영준, 배현기, 김성규, 신재력, 나영재 (동지중, 용흥중, 포항중 2)

김원민 (고창중 3) '매대신 칭찬을 주세요!
 김민아 (매화초 1) '잘려나간 머리카락, 잘려나간 학생인권'
 김용성 (매화초 1)
 이신영 (매화초 3)
 곽우진 (매화초 1)
 서동민 (고창중 3) '다 보고 있다!!'
 장은정 (경동초 5) '성폭력 없는 학교 원해요.'
 이도연 (매화초 3)
 박채원, 오성수, 김지원, 야진영, 신다연 (봉천초 4)
 '재미평평 웃음활짝 - 우리는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영상부문 :

조국화 (푸른꿈고 3) '당신을 위해 수레바퀴를 돌려라'
 박소영 (울산중 3) '공부 압박'

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공모전 수상집발간 및 향후 계획

올 공모전은 응모 대상을 예년에 비해 확대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주장과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바람직한 학교 모형을 제시하였다.

"벽을 넘어, 인권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5회 가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공모전 수상집을 제작하고 동영상, 그림, 만화 등의 수상작은 영상 제작하여 40여개의 지부지회 및 교육단체, 시민단체, 참가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을 위한 사회 문화적 인식 고취와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안마련과 제도개선 제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상

닭싸움

김서현, 반세희 | 이우고등학교 1학년

닭싸움

“단아. 오늘 잘 해야더. 내 오늘은 인택이 그놈의 자숙 코를 납작하게 눌러야겠어.”

오늘따라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꾸만 단이를 보채는 형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단이가 형석의 오래된 앙숙인 인택의 닭과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형석과 인택은 이미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투계꾼이다. 형석이 수년째 훈련시킨 단이는 투계 판에서 가장 유명한 싹닭이다. 그의 명성만큼이나 오늘도 역시 투계장의 많은 사람들이 단이에게 돈을 건다. 형석은 혹시나 예전의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 될까하는 노파심에 단이에게 주사를 놓는다.

“단이야, 오늘은 아저씨가 비싼 주사도 놔줬으께, 꼭 이겨야더. 알긋지? 그리고…….”

형석이 말을 잇지만 단이는 약기운 때문인지 점점 정신이 몽롱해 진다.

2007년 5월 7일

커다란 지렁이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지렁이를 잡았다. 연이가 아침부터 나가 놀자고 조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몰래 닭장을 빠져나갔다. 재미있게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연

이가 급하게 나를 불렀다. 나는 연이가 뱀이라도 봤을까봐 혈레벌떡 뛰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연이가 가리킨 곳에는 뱀만 한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도망가려던 나를 연이가 붙잡았다. 원래 겁이 없는 연이는 함께 지렁이를 잡아보려고 했다. 그렇지만 지렁이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나는 내심 겁이 났다. 연이는 내가 말릴 새도 없이 지렁이를 향해 다가갔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이를 쫓아 지렁이를 함께 쫓아냈다.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 본 친구들도 하나 둘 달려와서 힘을 모아 함께 지렁이를 공격했다. 커다란 지렁이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공격에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다. 비록 지렁이를 잡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신이 났다. 나 혼자였다면 분명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것이다. 나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다! 오늘의 지렁이 잡기. 성공!

2008년 2월 23일

새로운 세계

아침 일찍 일어나 마주 본 연이와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서로의 눈이 너무 텅텅 부어있었기 때문이다. 연이도 나처럼 어젯밤 엄마생각에 쉽게 잠이 들지 못했나보다. 정든 시골과 엄마를 떠나 연이와 서울로 상경한지 벌써 나흘째인 오늘,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새로운 주인은 시골 아저씨처럼 푸근한 인상도, 볼록하게 나온 똥배도 없었고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잠자리는 넓은 마당이 아닌 겨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닭장이었다. 그 안에서는 걸어 다닐 수도, 누울 수도 없이 오직 그냥 서서 밥밖에 먹을 수 없었다. 닭장 안에 한참을 서 있다가, 주인이 몇몇 닭장의 문을 열어주어서 드디어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밖에서 연이와 만난 나는, 처음으로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다. 형들은 하나같이 모두 몸이 성한 구석이 없어보였다. 짓눌려 빨개진 발목과 몸에 수도 없이 난 작은 상처들. 우리는 옆에서 우리를 가만히 노려보던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에 다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셨다.

“흥.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야? 애송이들이 같으니라고. 여기는 상대를 밟고 상처를 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투계 판이야. 네가 살아남으려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죽도록 싸워 이겨야 해. 저 정도 상처에 놀랄 거면 여기에

발 들일 생각일랑 하지 말고 썩 나가버려.” 우리를 비웃는 아저씨의 말에 다시 한 번 깜짝 놀라 연이가 되물었다.

“남을 때리고 아프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다 함께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아저씨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이 귀찮아하며 대답하셨다.

“아우 정말 말 못 알아먹네. 어디서 이렇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을 데려온 거야. 저기 양 발에 칼 달고 있는 녀석 보이냐? 재가 바로 ‘쌍칼’이라고 하는 앤데, 우리 사이에서도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지. 저 자식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처럼 이곳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한번 깨지고 나더니 180도 달라지더군. 이제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절대 봐주지 않아. 죽을 만큼 공격하고 누구든지 뺨고 올라서지. 나중에 저 자식 싸우는 걸 한번 봐봐. 오금이 저려서 서있지도 못할걸? 케케케케.”

아저씨가 가리킨 쌍칼은 얼굴에 칼에 베인 듯한 긴 상처로 왼쪽 눈을 잘 뜨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날카로운 다른 한쪽 눈이 어느새 우리를 매섭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혼란스럽다. 이곳의 닭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일까. 우리도 이틀처럼 변하게 되는 걸까....?

2008년 3월 2일

마지막 절규

연이와 나는 아침 일찍부터 힘든 몸을 이끌고 훈련을 하러 나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항상 이른 새벽부터 홀로 훈련을 하던 쌍칼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쌍칼은 늘 다른 닭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말없이 고된 훈련을 해서인지 아무도 그가 사라진 것을 눈치 채지 못한 듯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닦달하던 주인아저씨도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평소와 같이 다른 닭들과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각자의 닭장 안으로 들어왔다. 연이도 나도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연이가 갑자기 냅다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뭐야! 단아! 저 형 다리가 이상해.....저기 좀 봐봐.....” 연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그곳엔 ‘피도 눈물도 없는’ 당당한 쌍칼이 아닌, 두려움

에 떨고 있는 한 마리의 닭이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그가 두발이 아닌 한발로 힘겹게 서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온통 피투성이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이는 주인아저씨가 들어왔다.

“헛따! 간만에 댘놓고 싸우라고 어린놈을 붙여줬구먼, 그 핏덩어리도 못 이긴겨? 내가 니놈을 어떻게 키웠는디, 네가 그래부러야, 니같은 놈 따위를 믿고 큰소리 뽕뽕 친 내가 들은 놈이제. 네놈 때문에 인택이 그 못난 놈이 나를 비웃고 있잖여! 아유, 내 인택이 그놈 척추를 접어블랑께! 너 같은 놈은 이제 필요없어! 이왕 한쪽다리도 나갔응게, 통닭구이나 되어 부러! 너는 이제 끝이여!!!”

주인아저씨는 피투성이의 쌍갈을 발로차고 마구 때리며 악을 썼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의 악도 쓰지 않고 주인아저씨의 발길질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 그의 눈빛에서 엄청난 공포와 무언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주인아저씨가 쌍갈의 목을 번쩍 들더니, 그를 들고 걸어 나가려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쌍갈이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데!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먼저 나를 죽였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끝나려고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니라고! 그깟 어린놈 하나가 날 무너뜨릴 순 없어!!! 나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잠깐의 실수였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난 언제나 최고였다고!!!!!!”

그렇게 쌍갈의 목소리는 멀어져갔다. 연이와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단이야.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저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저 싸우는 기계일 뿐이야. 저렇게 살다간, 우리도 저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야. 저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해. 반드시!”

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굳은 다짐을 했지만, 나는 연이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죽였다는 쌍갈의 마지막 절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것이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것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정말 최고가 될지도 모른다.

2008년 4월 15일

쌍칼의 눈빛, 큰손의 눈빛.

쌍칼이 주인아저씨에게 들려나간 그날 밤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닭장에는 새로운 닭이 들어왔다. 모두들 쌍칼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잊혀져 간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주인아저씨의 눈에 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연습했고, 연이는 더욱더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깊게 잠든 연이 몰래 나는 아침 일찍 훈련을 하러 나갔다. 오늘은 나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된 훈련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연이는 나를 말렸지만, 나는 연이를 모른척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아저씨는 쌍칼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후로 많이 날카로워 졌다. 사람들도 이제 막 판에 나온 나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조금은 두렵지만, 살아남겠다는 마음 하나로 꼭 이기겠다는 다짐을 하던 그때, 아저씨가 칼 두 개를 들고 나에게로 왔다.

“단아. 첫 판 잉게 맴 단단히 먹어야혀. 내 쌍칼 그놈땀시 옥먹은 게 말도 못혀. 오늘 그 유명한 ‘큰손’이 나오는 맹키로, 니가 꼭 이겨줘야졌어. 알 갔지? 열심히 했응께, 잘할 수 있을꺼여!”

그래, 나는 최고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연이는 서로를 지켜 주자고 했다. 나는 지독히 독한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어 서로를 지킬 것이다. 아무도 나를 밟을 수 없도록. 드디어 나의 첫 경쟁이 시작됐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첫 번째 싸움.

큰손은 듣던 대로 덩치도 크고 사나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어보였다. 베테랑답지 않게 행동도 굼뜨고 의욕도 없어보였다. 그때, 큰손의 주인인 듯 한 남자가 그에게 정신 차리라며 소리쳤고, 그는 화들짝 놀라 나를 공격했다. 그러나 나는 별다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큰손이 멍하게 있는 틈을 타 쥘쥘하게 그의 날개를 강하게 가격했다. 큰손의 날개가 부러지고 예상외로 나는 쉽게 첫 승을 거머쥘 수 있었다. 뜻밖의 결과에 주인아저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최고가 된 기분이었고,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는 갑자기 쌍칼이 떠올랐다. 단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최후를 맞이한 그가 떠올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모든 것을

있고 두려움에 떨었던 쌍칼의 눈빛이 아닌,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편안한 눈빛의 큰손이 있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쳐갔다. 뿌듯한 마음으로 닭장에 돌아와, 잠든 연이에게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추스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나의 첫 승리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던 그 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 싸움닭이라면 꼭 차고 있어야 할 ‘칼’이, 큰손의 발목엔 없었다. 그는 도대체 왜 칼을 차지 않았던 것일까.....?

2009년 6월 7일

눈물

형석이 나에게 이상하리만큼 상대를 숨긴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칼을 차고 나간 투계 판에서 본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상대는, 얼마 전에 형석이 맥아리가 없다며 팔아넘긴 연이었다. 나는 순간 형석을 비웃었다. 내가 그렇게 사소한 감정 따위에 휘말릴 줄 알았던 것일까. 나는 강해졌다.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절대 봐주지 않고, 죽을 만큼 공격하고 누구든지 밟고 올라서는’ 내가 되었다. 연이의 떨리는 눈동자가 보인다. 떠날 때도 저런 나약한 눈빛이었다. 연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아마 그는 나를 죽일 순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시작되었다. 나는 언제나와 같이 금방이라도 죽일 듯한 눈빛으로 연이에게 달려들었다. 연이는 역시나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는 시늉만 했을 뿐, 계속해서 나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쉽게 그의 목덜미를 물 수 있었다. 경기는 끝났다. 이번에도 내가 승자였다. 연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럼에도 연이에게서 나를 원망하는 눈빛은 찾을 수 없었다. 연이는 항상 그랬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진저리가 난다. 숨 쉬는 것도 벽차 보이는 연이가 입을 열었다.

“단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너도 알고 있잖아. 누구의 아픔을 밟고는 결코 행복해 질수가 없어. 늦지 않았어. 우리.....다시 돌아가자.....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그때로.....”

“이미 늦었어. 죽었어. 옛날의 단아는 이제 여기 없어.”

친구라 해도, 형제라 해도,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최고가 되기 위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오늘은 단지 그 수단이 내 친구가 되었을 뿐이다. 그저 오늘도 나는 상대를 밟고 올라선 것이다. 후회는 없다. 나는 오늘도 이대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된다. 그렇게 나는 연이의 점점 작아지는 숨소리를 뒤로 한 채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때, 왜 내 눈에선 눈물이 나왔던 걸까.

“단아, 니 왜그라노? 정신차리그라. 이제 나가야재. 오늘 처음싸우는 어린놈이 나온다카드라. 별거 아니재? 주사도 맞았으니께, 이길기다. 이제 칼 묶었응게, 나가라.”

단이는 맞은편의 경기를 준비하는 어린 닭을 본다. 야망이 가득한 그 어린 닭의 눈빛은 자신의 처음을 떠올리게 해준다. 그제야 단이는 큰손의 허전한 발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것도.....

오늘따라 경기장위로 들어서는 단이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



인권상

거인과 난쟁이

김재철 | 칠금초등학교 5학년

학교라는 어항속 물 비우기

노현덕 김성민 유병호 이재민 | 이우고등학교 1학년

칭찬의 힘

이하영 | 충주여고 2

화구박스를 들고 나선 길

박인자 | 일반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조원표 | 일반부

인권상

김재철 | 충주 칠금초등학교 5학년

거인과 난쟁이

아! 떨린다.
선생님에게 혼날까?
숙제를 할 걸
후회된다

머리 속엔 숙제로
부글부글
온 몸마저 부들부들

선생님이 걷는 소리
마치 쿵! 쿵!
나는 난쟁이처럼

선생님 작은 소리도
너무 커서 무서워!

선생님은 우리 엄마랑
똑 같이 닮았다.

인권상

노현덕. 김성민. 유병호. 이재민 | 이우고등학교 1학년

학교라는 어항속 물 비우기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친 시험점수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싶다.

-2006년 학업부담으로 자살한
어느 초등학생의 유서 中.. (출처 : ebs
지식-e)

교육의 시작은 소외의 시작. 새 학년이 시작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아이들에게 다가온 것.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시작과 함께 다가온 것은 '소외'이다. 아이들은 성공 아닌 성공, 공부 아닌 공부를 위해 남과 끝없이 경쟁하며 스스로를 소외 시키게 된다. 그 소외 속에서,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교육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는 참된 교육의 모습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리고 꿈이 살아있는 학교'이다. 학교에서 강요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공부 아닌 공부'를 그만 두고, 학생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 해 주며, 그들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는 학교야말로 참된 교육이며 참된 학교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교육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을 쓰고자 한다.

학생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해 보고, 자신의 흥미가 있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 삶의 형식을 배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선 학생의 의무는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한 공부는, 가장 친한 친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시험점수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도 만들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와 공부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는 아이도 만든다. 따라서, 공부를 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며 괴롭게 하는 것일까. 많은 요인 중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특목고’를 예를 들어 말하겠다. 우리나라의 특목고란, 단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다. 특목고는, 잘하는 아이들을 끌어주는 과정에서, 뒤쳐지는 아이들을 소외시킨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교육을 주는 것은, 수치라고 말하지만, 특목고에서는, 천차만별의 교육 수준을 성적별로 층이 나뉜 학생들에게 배분한다. 즉, 잘하는 아이들에겐, 높은 난이도의 교육을, 못하는 아이들에겐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교육을 주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질’의 교육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뒤쳐지며, 아주 질이 낮은 교육만 받게 되는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의 공부에 열두하지 못하게 되고, 아예 공부를 포기한 거나 사교육에 모든것을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사교육에 모든것을 맡긴 채, 입시공부를 주입받는 아이들이나, 특목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는 절대 즐거운 일일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얼마 전, 초등학생이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한 일이 있었다. 광주에 있던 이 초등학생은, 삶을 비판하는 유서와 함께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그 유서에는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 큰 슬픔과 우울함을 느꼈으며,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실제로 중간고사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시도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을 비판해 자살한 것은 학교가 지필평가를 실시하여 어떤 형태로든 성적처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수행평가 위주의 학생평가로 선다형 집필고사 대신 서술형 평가를 권장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경쟁하면서 공부하라’, ‘이만큼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너의 지식을 위해, 너의 교양을 위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 하지 말고 단지 입시만을 위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남을 이기고 좋은 대학만 가면, 이른바 ‘학벌’이라고 하는 귀족 수준의 사회적 계급이 보장된다!” 라고 부추기고 경쟁을 요구하는 행동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경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반 □□□합격 축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반 □□□합격

대학입학시험,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나 학원 옆을 지나다 보면 ‘○○대학교 합격자 □□□’ 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은 이제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단순히 학교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학벌주의 풍토, 경쟁하는 교육,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라는 수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덩어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관념을 심어주는 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현수막이 우리에게 그런 사회적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현수막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으니 그 목적에 잘 들어맞게 성공한 셈이다.

한번쯤은, “그래서, 어찌라고?,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간 게 학생으로서의 최고의 성취인가? 라고 따지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배움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경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도 당연한 말이다. 특히 학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당신도 얼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당신도 얼른 경쟁의 무리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학벌주의 풍토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뒤쳐진다는 소리는 사회적으로 성공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일본의 가전제품은 지나치게 잘 만들어져서 다음 신상품이 안 팔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물건의 내구성이 너무 좋아 10년, 20년을 써도 멀쩡한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것을,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들은 이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교육이 아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교육 아닌 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경쟁시키는 교육은 효과도 떨어지고 학생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며 돈은 돈대로 써야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폐해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생들보다 공부시간은 훨씬 적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은 핀란드 같은 나라도 있다. 게다가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일보 2008년 10월 24일 (금)에서 인용해온 기사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3일 수원, 성남 등 도내 10개 지역 교사 432명과 학생 3천 26명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직후인 16일부터 3일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일제고사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80.5%인 348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기여도는 87.9%(379명)가 '아니다'로 답했다'.....(생략) - 수원일보 2008년 10월 24일 (금) 전철민 기자 ckj0625@suwon.com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있으므로, 이 설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경쟁하는 교육, 그것이야 말로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상처 되는 행위일 것이고, 이런 부당한 강요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야자와 0교시 등이 그런 예이다. 학생들은 원래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서 자율 아닌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학생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해 질 뿐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학생 개인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교3년의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입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부를 한다 하여도, 학생마다 그 공부법은 다를 터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바라고 또 생각하는 참된 교육이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 위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학생들이 책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

는 마찬가지로의 것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움의 과정 자체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경쟁하는 이유는 공부=입시=성공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와 입시와 성공이 같은 선상이 놓여있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풍토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로가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방식의 교육은 사회의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학벌주의 풍토를 한 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대학들을 분산시키고, 대학마다 특성을 갖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비교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현대사회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아무리 훌륭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이른바 ‘지방대’에 있으면, 이상하리 만큼 찾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받았는지가 아닌,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 가로 학력수준을 판단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참된 교육을 지향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그런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칭찬의 힘

안녕하세요?

전 17살이에요.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랑 저 단 둘 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망구예요. 밥만 해주는 할망구 요즘엔 밥도 안 먹고 학교 가서 할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이에요.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날 두고 먼저가요?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줄곧 소심하게 지냈어요. 가방끈 꼭 잡고 학교 다니기 일쑤였고요.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하도 얘기를 안 해서 지금은 단짝이 된 승민이가 6학년 때까지 저 병어리 인줄 알았대요. 그러다 중학교 올라오면서 소위 노는 아이들하고 놀게 됐어요.

술은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타고 담배에까지 손을 댔죠.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무서운 형들한테 맞기도 하고 애들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옆 학교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운동장에 모였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오토바이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고 비치는 불빛 사이로 각목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 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싸움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옆에서 피 튀는 게 보이고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싸움은 우리 학교가 이겼어요. 근데 쪽팔리게 엄청 많이 깨졌더라고요.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들이 싸운 애들을 불렀어요. 어제 맞은 데도 아픈 데 엉덩이를 또 때렸어요. 손들고 무릎 꿇고 있는데 엄청 낮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는 꾸부정해서 쪽팔렸는데 선생들이라는 사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비린내 나지 않아요?”

“아휴 그러게요 옷이라도 반듯한 거 입고 오시지”

진짜 화나서 선생한테 달려들고 싶었는데 진짜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연신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더니 날 불렀어요.

“이 할미가 미안하다 바르게 못 키운 이 할미가 미안하다”

그러곤 약도 발라주시지 뭐예요. 화낼 줄 알았는데 화도 안내시고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난 약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솔직히 그때 마음은 미안 했는데 나도 참 못 됐나 봐요.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저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애 낳으러 가서 임시 담임선생님이 왔어요.

“여러분 잘 지내 봐요. 전 이채영 이에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입 벌리고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맘에 들었어요. 국어 시간이 어쩌나 기다려지는지 국어가 일주일에 많이 들었으니 망정이지 음악 선생님이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선생님도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먹을 거 생기면 나 먼저 주고 발표할 때 다 같이 들어도 저만 시켜줬어요. 하루는 학교를 안 갔어요. 피시방에서 놀고 싶어서 그냥 안 갔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과자가 한 다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웬일이지? 이렇게 과자 많이 안 사는데’

밥도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주위를 보니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쪽지를 열었는데

‘정우야 학교 왜 안 왔어? 우리 반에 정우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나더라. 할머니하고 선생님은 먼저 밥 먹었어 할머니 일 나가신다더라. 밥 많이 먹고 내일은 꼭 학교 나오자!’

괜히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학교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래도 행동은 쉽게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 선생님이 잡아줬어요.

“정우야 우리 한번만 참자 딱 한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 줄게”

“진짜요? 저 그럼 이번 성적 10등 올릴게요.”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보다 칭찬해 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올랐나 봐요. 할머니한테도 더 잘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요즘에 많이 아파서 걱정이예요. 이젠 노는 아이들과 놀지도 않아요.

겨울이 되고 졸업하게 됐어요. 저 상도 두개나 받아요! 선생님이 기뻐서 우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이 잡아주신 그 손이 어찌나 좋은지 아직도 못 잊겠어요. 지금 저 고등학교에서 알아주는 범생이에요.

“와 정우 이번에도 일등이구나?”

화구박스를 들고 나선 길

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 시험과 성적문제로
 내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겼다, 아주 깊게
 더 좋은 대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목젓까지 차 오른 터질 듯한 생각

마음 비우고 싶어 화구박스 들고
 목 길게 늘어뜨린 나무와 흙먼지 폴폴 나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에 섰다

바람이 분다
 머리가 헝클어진다
 아득한 저 길 끝에서 왔던 바람은
 옷까지 잡아당기며 거친 숨을 몰아 쐬다
 헉,헉,헉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부터
 크고 작은, 그래서 가슴 움켜쥐는 통증으로 인해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떨림이 온 몸을 흔들 때는
 눈물도 웃음도 범벅이 되는 날이 있었다

길옆에 화구박스를 열고 스케치를 한다

나무, 꽃, 햇살, 바람, 물소리
파르르 눈도 떨리는 눈이 아플 정도로 담는다

큰아이 대학진학 문제로
내내 허리 꺾이는 허기짐
뼈마디가 시리다, 물기가 고인다

붓 칠이 더해 갈수록
그림 속에는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스멀스멀 지난 추억이 살아 나와
눈물 한 방울
톡 하고 떨어져 길 위에 흩어진다

온 몸에 덕지덕지 붙었던 힘겨운 삶의 조각들
떨어져 길가에 길 위에 눕더니
훅- 사라진다

이내, 다 그린 그림 속 길이 벌떡 일어나
나를 잡아 당겨 꽃잎처럼 감싸준다
떨어졌던 얼얼했던 붉은 상처가
따뜻해진다, 큰아이의 환한 미소가
여러 겹으로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1. 추진배경(목적)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동 유괴실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상호보조적인 노력을 전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지고 밝고 명랑한 학교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방침

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상담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적극적으로 선도한다.

다. 학부모 상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가정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3. 세부추진 계획

1) 다양한 놀이 문화 보급: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몰입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은 그 폐해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은 오프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 메이플 스토

리, 넷마블 등의 게임을 즐기다가 서든 어택과 같은 잔인한 폭력 게임에 빠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대방을 찌르고 쏘고 죽이는 잔인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와 사고를 파괴하고 결국 현실에서 동료들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행동을 일삼게 된다. 뇌신경학자인 일본의 모리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게임을 많이 하면 뇌의 전두엽이 파괴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창의성이 없어지면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친구를 툭툭치는 행위는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인터넷 게임보다는 다양한 활동적인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야 한다.

2) 또래 상담의 활성화: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 대상으로 부모나 교사를 찾기보다는 또래 친구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대화가 통하는 상대로 또래 친구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급에서 리더십이 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학생을 한 두명 선발하여 또래상담자 훈련을 시킨 후 이들을 상담자로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3) 생명존중 교육의 강화: 요즘 인터넷 게임과 각종 청소년 유해 매체는 생명 경시를 부추기며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주말농장이나 고향방문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학교에서는 학교에 사육장을 만들어 토끼나 닭 등을 키우고 도시학교에서는 교재원에 각종 식물이나 야생화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진로교육 강화: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좌절감을 경험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기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조기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조리과학 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와 같은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 세분화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5) 능력 중심의 사회 문화 풍토 조성: 학력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풍토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 기술분야, 예체능분야, 기타 공부 외에 각종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교육은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6) 타인 배려의 풍토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습관이나 행동이 체득되도록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떠들지 않기, 화장실에서 노크하기, 급식 시간에 줄서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7) 각종 NGO 시민사회 단체의 활용: 현재 청소년폭력예방 재단(02-585-0098)이나 학교폭력 SOS지원단(<http://www.jikim.net>)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단체를 활용해야 한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단체이고 학교폭력 발생시 무료로 중재활동을 해주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기가 곤란한 사안 발생 시 이러한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8) 학교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 권장: 힙합 댄스 동아리, 독서 모임, 신우회, 합창부, 운동부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급적이면 활동적인 부서를 많이 신설하여 운영한다.

9) 건전가요 및 동요 부르기, 명상의 시간 운영: 현재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비교육적인 대중가요나 댄스보다는 건전가요나 동요를 자주 불러봄으로써 맑고 고운 마음과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 명상의 시간에는 잔잔한 음악(인디언 모드) 요가 동작을 함께 곁들여 실시하는 것도 좋다.

10) 전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실시: 학교에 처음 전입한 학생들은 학교 시설과 동료나 교사들이 낯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나 담임교사가 학교의 제반 시설을 안내하는 학교안내(School tour)를 실시하고 다과회와 함께 학교의 규칙이나 교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11) 수영장 설치 및 음식 만들기: 학생들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수영만큼 좋은 운동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재정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량 및 특별활동 시간 또는 토요일에 음식 만들기를 해봄으로써 지능개발도 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2) 호각 지급: 학교 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호각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히 폭력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13) 지역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상담 기관이나 시설 등의 지역 상담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한다.

1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강화: 폭력의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상담을 실시한다.

15) 학부모 자원인사의 활용

① 마미 캅(어머니 봉사단): 단장과 부단장, 학년 대표로 마미캅을 조직하고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방과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함께 미니게임이나 유해환경 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모자와 조끼,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녹색어머니회의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지 학교의 유휴공간을 마련하여 유니폼을 보관하고 커피타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한다.

② 명예상담교사(음부즈만)제: 학부모 중에서 심리학이나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명예상담교사로 위촉한 후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상담부장과 함께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각종 심리검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개인 및 집단상담은 상담함을 마련하여 수시로 신청을 받아 상담날짜를 약속하고 전입생의 경우 낯선 학교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입생들의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수호천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사 중 자율방범대와 같이 학교주변에서만 집중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인사로 구성한다. 마미캅이 주로 어머니 회원들이라면 아버지회원들이 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16)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정도가 심각할 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현실화하도록 한다.

17) 전문상담 교사 운영의 내실화 :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 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명 정도의 인원으로서는 단위 학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상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와 같은 순회 상담의 차원을 넘어 모든 학교에 상담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등학교에도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거나 상담 경험이 있는 교사를 보직교사로 배치하여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8) 학교운동장에 가로등 설치 : 야간에 학교는 온갖 범죄의 사각지대로서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야간 순찰을 도는 단속경찰들의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학교운동장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모든 단위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19)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과위주에 치우치다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농구나 배드민턴, 탁구와 같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여 학생들의 교외 활동을 증진한다.

20) 친구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 칭찬 릴레이, 친구나 부모 얼굴 그리기, 친구나 부모님 이름으로 3행시 짓기, 친구나 부모님께 선물하기, 생일 마니또(비밀 친구), 사과 편지 쓰기, 친구 부모님 초청행사 등의 내용으로 친구를 이해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21) 교사의 사명감 제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상당수에게 질문한 결과 가장 싫어하고 중요하는 대상 1위가 교사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 것을 볼 때 현장 교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시사해주는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

는 소명의식(Callings) 있어야 한다. 오천석의 스승에 보면 교사의 역할을 ‘인간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구도자’라고 표현했듯이 동시대의 대변인으로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공감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
-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전공(파견근무)
 - * 일본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유학
 - * 현재 경기진로정보센터 사이버 상담원
- * 010-3338-3782, 031-987-8562 학교



아이디어상

시험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아이를 망친다 김태현 | 향도초 5

우리는 학생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예요

권정현, 박지원, 백이영, 오수은 | 이우고 1

학교, 단지 성적만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안준영 | 영흥중 1

두발규제- 진짜 우리를 존중한다면? 김태균 | 동지중 2

내가 바라는, 가고싶은 학교는! 김성규 | 용흥중 2

성적이 높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안승준 | 부설초 5

엄마가 빨났다 강병운 | 충일중 1

사랑의 매 김정은 (남산초 4)

조회시간 김예인 | 성남초 3

시험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아이를 망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요즈음 학생들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부모님들은 “너는 그 누구보다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말을 시험 보는 날에 말씀하셔서 학교로 가는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성적표가 나오면 모두들 가방에 숨겨 버린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무서워서이다. 집으로 가면 부모님이 “시험은 잘 봤니? 성적표는 가져왔니” 꼬치꼬치 물으신다. 보여드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성적에 대한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 소수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도 끊는다.

부모님들이 자식의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자신들이 칭찬을 받고 싶고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닌지 의심된다. 부모님들은 너무 학생의 마음을 모른다. 시험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나 시험을 본 후에 보여주는 태도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않는지 신기한 일이다. 또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잔소리가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적 때문에,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생이 자살한 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한 부모님에게도 있다.

이런 비극을 줄이려면 먼저,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삼가야 한다.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으면 학생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또 학생들 역시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께 잘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을 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본 후,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수고한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잘 했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 보자. 엄마 아빠도 도와 줄게” 이렇게 말씀 해 주시면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디어상

권정현. 박지원. 백이영. 오수은 | 이우고등학교 1학년

우리는 학생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교육의 실태이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야간 자율학습, 두발규제, 체벌, 사교육 등이 있다. 우리는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그 정도도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학생이라는 꼬리표만으로도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이다. 교육에서 강압적인 야자,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는 두발규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체벌, 당연하다시피 하는 사교육, 이러한 요소들 없이는 참된 교육은 실현되지 못하는 걸까?

우리에게도 개성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하는 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자신이 진학할 학교의 두발 규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이다. 다시 말해, 귀밑 몇 센티미터와 같이 두발규제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삼 년 동안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두발 규제를 받아야 하고, 두발 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발 규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머리길이가 규제보다 1,2센티미터 더 긴 것 가지고 학생을 때리고 그냥 아무데나 밀어버리는 선생님과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학생의 관계는 볼 보듯 뻔하다.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머리스타일이 어떠한든 상관없는 아이

는 거의 없다. 자신을 꾸미고 싶은 마음, 혹은 자신의 체형이나 얼굴에 맞게 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막고 있다. 두발 규제로 인해 억지로 맞지 않는 머리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되던 일도 잘 안 되고, 공부 또한 못 하게 된다.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뒤떨어진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학생의 본분을 자각시키는 명분에 맞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사회 속 하나의 집단이다. 민주적 시민들 사이에서의 규칙이라 하면, 상호 간의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세세하게 학생들의 차림새까지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머리 스타일만 보고 학생답지 못하다는 소리도 많이들 하신다. 그 어른들에게 묻겠다. 유명한 예술가나 소설가 등 유명인들을 보라. 그들 모두가 스포츠형 머리나 단발머리를 하고 활동을 하는가. 머리 스타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은 모두 어른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미래에 어른이 될 학생들에게 타당성을 주장할 이유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가.

사춘기 시절 자신의 모든 것에 예민할 때에 학교가 법이랍시고 사소한 두발 문제로 개개인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참된 교육에는 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이 잘못했을 때 행하는 ‘공적인 폭력’이다. 교사는 왜 하필이면 때리는 방법으로 학생을 대했을까 생각해보자. 민주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의사소통이다. 대화와 더 나아가서는 설득이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간의 싸움이나 폭력문제가 일어나면 선생님은 그 학생과 3개월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생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그 학생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기 싫어서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영국의 교육제도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젠틀함의 상징, 영국신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체벌을 찬성하는 선생님 중에 학생과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은 몇이나 될까. 즉, 체벌을 찬성한다면 자신이 학생과 대화하고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도 그렇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때리는 쪽이 문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다. 사제 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생님도 사람이고, 학생도 사람이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먼저 때린 것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마땅히 법 앞에 처벌받아야 한다. 결국 체벌은 범법행위이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며 지식과 더불어 인성과 참된 교육을 가르치는 부모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학생을 가슴으로 대하는 선생님이라면 과연 체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신의 아이를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부모들도 많다. 아이가 잘못했으니 때림으로써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있다. 피학은 가학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 체벌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때린다는 연구도 있다. 무서운 되물림이다. 무차별적인 체벌은 비인간적,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이다.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사랑의 때'라는 엉터리 개념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체벌의 공정성을 가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벌에서 벗어나 더 넓게 학생의 과실을 인식하게 하고 교육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사교육을 하면 당연한 거고, 안하면 독중.

사교육이란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갖는다. 2007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한 해 사교육비는 20조 400억 원이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7.0%,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이 55.5%였다. 위와 같은 분포도가 증명하듯 한 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엄청나다. 또한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노력,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사교육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사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마치고 10시가 넘어서까지 학교에서 야자를 한다. 그것도 모자라 야자가 끝나면 곧장 학원에 가거나 혹은 과외를 받는 것이 보통 고등학생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평균 4~5시간 밖에 자지 못한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할뿐더러 공부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쌓고, 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찾아 나가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지 관심을 갖으며 공동체 삶을 배워가고 익숙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

는데 투자해야하는 학생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각자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은 사늘하게만 느껴진다. 우리사회의 ‘학벌주의풍토’ 또한 한 몫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야자를 하게 강요하고, 성적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며 학생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부추이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목적을 두고 그밖에 학생들의 생활이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고민을 털어 놓을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편안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청춘의 반을 학교에 앉아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아침 7시까지 등교해 밤 10시에 하교한다. 무려 15시간,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정규수업을 제외한 아침자율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이 학교에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낼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 자율학습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학교의 감시 속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년에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강제 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많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폐지된 0교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기도 했었다. 0교시는 아침자율학습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1교시 전의 보충수업을 뜻한다. 아침 자율학습과 0교시는 명목상으론 정규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인데 현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야간자율학습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적으로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과 같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학원과 같은 사교육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을 뺏기고 있다. 학생 때에는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잔혹하다. 학생들은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까지 쪼개 공부를 한다. 학생들이 시간에 죄여 괴로워하지 않도록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는 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같은 생각이 드는 학교이다.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어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정말 다채로운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이다. 수업은 ‘국영수사과’ 중심이 아닌, 입시를 위한 내용이 아닌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바란다.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학교를 바란다.

도대체 언제부터 학교라는 공간은 답답하고 지루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일까?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눈망울들,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찬 재밌는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체벌이나 야자 등,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가 신문이나 어딘가에 오르내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학생들은 학생답게라고 하지만 진정한 학교와 참된 교육 없이는 학생들은 학생답지 못할 것이다. 학생은 결코 공부만을 해야 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창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단지 성적만을 위한 교육을 해야하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성적이 높으면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해 진다는 이상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적에 대한 애착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 마치 좋은 성적이나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양 난리들이다.

물론, 이런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우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적을 중시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등한히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다. 성적지상주의의 교육 방침은 예·체능 등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소질을 발휘하는 학생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킨다. 게다가 예·체능계 학생 중 아주 특출하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면 교육적 관심에서 소외된다는 것도 문제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을 돋보이게 해 주는 존재로 전락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는 분명 잘못되었다.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는 경직된 학생지도로 나타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과 폭력, 복장 단속, 0교시 강제 수업 등도 성적지상주의의 한 폐해에 불과하다. 학생은 개인의 개성이나 관심은 잠시 접어 두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해야 하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은 여지없이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는 교육태도다. 이런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 학생을 구타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윤리와 합리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함부로 대하고 우롱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상처받고 아파할 학생의 심정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그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고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보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벌과 폭력, 오직 성적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태도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선 각 학교현장에서는 정적 향상을 위한 강압적 교육 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교사의 평가를 받는 만큼,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나 미술과 음악을 잘하는 학생, 춤을 잘 추는 학생 등 공부는 좀 못하지만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보이는 다양한 학생을 같은 기준에서 포용해야 한다.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진국의 바람직한 교육제도를 수용하고 기술, 기능, 예술, 체육 등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말 그대로 전인교육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부만 잘하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머리만 큰 기형아와 다른 장점이 있음에도 교사와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방황하는 문제 학생, 이 모두가 우리 교육의 희생자이다. 성적은 학생을 평가하는 한 기준에 불과하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 제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한다.

두발규제-진짜 우리를 존중한다면?

“두발규제!”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청소년 이라면 누구나 짜증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 특히 두발규제와 관련지어 말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교 시절로 접어들면서 슬슬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되는 청소년기에는 이 두발규제란 참 눈엍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부터 두발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두발규제는 일제의 잔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발규제가 일제의 단발령 때부터 시작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 우리나라를 보급기지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이 아닌 병사를 육성하는 곳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두발규제, 교복 등이 생겨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가 아직도 이런 일제의 잔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게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또 어른들의 생각이 나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머리길이가 길고 염색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비행청소년인가? 정말 그런가? 난 정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 두발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간판처럼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과 우리나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시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발규제는 엄연히 ‘불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항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적혀져있다. 신체에는 머리카락도 포함되어있다. 그렇다면

두발규제는 헌법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에게 법과 규칙을 잘 지키라고 교육시키는 나라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을 마음대로 규격화 시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닌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에게 법의 신성함과 사회인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이제 내가 겪은 이야기를 말해보겠다. 우리 학교의 한 3학년 선배가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두발자유에 관해서였다. 그 글을 올린 다음 날 그 선배는 교무실 앞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받게 되었다. 두발자유에 대해 물어본 것뿐인데..... 난 그 3학년 형이 혼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되었다.

‘그냥 게시물 올렸을 뿐인데’하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 씩씩하기도 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우리들이 당사자인데 학교생활에 대해 의견을 내보려 해도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묵살하기 일쑤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과학적 근거로써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짧은 스포츠머리가 어른들이 강조하는 공부에 더 방해가 된다고 한다. 쭈뼛쭈뼛 서있는 스포츠머리는 두피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머리에 손이 많이 가게 해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머리형 또는 머릿결이 이상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콤플렉스가 밖으로 표출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반항심이 생기며 학습능력 즉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머리모양이 똑같으면 학업에 치중하게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으며 틀린 말이다. 학생의 학습능력은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 심리가 생기거나 자신이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할 때 비로소 오른다고 한다. 학교가 두발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학생에게 주지 않는다면 학생의 성적도 오를 것이고 학생들도 좋아 하고, 일거양득(一舉兩得)이 아닌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안 쓰면 후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어른들에게 물어 보겠다. 과연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학창시절에 머리를 기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분명히 기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걸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하면 ‘난 안 저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복날 개잡듯이 잡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묻고 싶다. 두발규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인지를. 법에도 순서가 있다. 헌법이 제일 위다. 교칙은 명령과 고시 수준이다. 과연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한정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체에 관한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이며 두발은 신체의 일부분이니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서두에 밝힌 헌법 12조 위반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헌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는 어른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우리의 미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존중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바라는, 가고 싶은 학교는!

나는 나의 학교에 불만이 전혀 없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 또래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발에 특별한 제한도 없고 복장에 대한 규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 조금 옆의 중학교는 우리 학교와는 좀 다르다. 엄청나게 제한이 많고 두발 규제는 심한 수준이다. 그 학교에 내 친구가 다니는 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다니는 공부방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쓰는 대회가 있다가에 내 의견을 한 번 의견을 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음을 알리고 싶다.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선생님들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두려워하실까? 우리는 공부방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자상하시고 착하시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폭력배나 불량한 학생들 보다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더 무서워서일 것이다. 요즘 TV를 보면 한 달에 한번 꼴로 교사가 학생을 폭력하거나 성폭행을 가했다는 기사가 속속 나온다. 그것도 대상이 대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대처방안을 알고 이해하고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대처를 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그 순진한 나이의 학생들에게 과렴치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성폭행과 폭력 죄로 법의 심판을 기대해 보아도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학생을 사랑해서, 생각해서라고 여기며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 같다. 이래서야 우리들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해소할 데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절대 맞아야 깨닫고 이해하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직업인 교사라는 직업이 어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더러운 직업으로 보여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선의를 가진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신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학생을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매 대신 칭찬이나 사랑, 웃음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매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부드러운 말로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들을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자. 학생의 두발과 교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어른들은 청결해보이고 단정해야 정신 집중이 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아님 학생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학생이 더 많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자유다. 왜냐하면 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생님들에게 몸무게를 줄여 주세요, 키를 좀 더 키워 주세요라고 한다면 선생님들도 분명 반발 할 것이다. 그것은 마음먹는다고 잘 되지도 않는 일일뿐더러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분인데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파마를 하는 것은 막아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길이의 자유 정도는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머리카락을 단정한 것을 보고 싶다고 선생님들의 머리카락 기준을 정한다면 선생님들이 곧바로 따라주시겠는가. 선생님들이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라고 하고 싶겠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 용모를 바꾸셔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들의 선생님은 제자들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주장을 해보는 것이다.

한 사례를 들어 보자면 내 친구는 머리카락이 조금 길다고 선생님께 강제로 잘렸다고 한다. 머리가 좀 길면 어떨까? 또 짧으면 어떨까? 머리카락의 길이로 불량하니 안하니를 따지는 것은 아무리해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기의 학생들은 워낙 외모에 관심이 많기에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런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강제로 잘라버리는 일을 왜 하시는 걸까? 선생님들도 이 나이 때를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또 우리는 머리카락 뿐 아니라 교복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다.

교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끼리의 단결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일 뿐이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개성을 묵살하고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다. 물론 미니스커트나 학생 신분에서 너무 벗어나는 옷들은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옷들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 학생 앞에 교복과 사복 중 편한 옷을 고르라고 한다면 과반수가 사복을 택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입을 옷까지 신경 쓰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감사한 일이나 지나친 규제는 우리를 짜증과 화만 내는 아이들로 만들 뿐이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졌으면 좋겠다. 만약 규제한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어른들과 선생님들도 이제는 학생들의 일은 학생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일을 결정하였으면 한다.

꼭 교복이나 머리카락 말고도 다른 자유를 말할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강제수업이다. 0교시와 7교시, 보충학습 야간 자율학습.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의 의사라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선생님들 아닌가?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 언제나 “도덕시간에 아 가르쳐 줬어?”라고 하시면서 정작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하겠는가? 우리는 단지 시험을 치려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지키고 익혀야 할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됴뵁이를 교과목 필기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험이 0교시와 7교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들의 능력과 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억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배우고 싶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선생님들께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어른들은 어떤 때는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또 어떤 때는 그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아이 자체를 나쁘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헛갈리게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창의적이고 활기에 차있는 시기에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 도전적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더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런 우리들을 한낱 성적표에 쓰여진 숫자에 따라 이 녀석은 이렇다느니 저 녀석은 저렇다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학생회에서 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이 소풍이나 야영, 수학여행 할 장소를 택하는 것이나 체육대회를 정하는 것에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학생회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학생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면 학생회에서 직접 봉사실천 포스터를 그리거나 홍보를 하여 학생들에게 봉사 정신을 심어주거나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학교에 초청하여 학생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나누어 어른 공경사상을 꾸며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이나 학교 내 문제점 해결 등의 많은 것을 선생님들께 제의를 할 수도 있고, 학생회 임원들과 회의 또는 토론폰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지금의 학생회 임원들은 사실상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의 기능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지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다. 사이버 학교, 왕따가 없는 학교, 두발 자유와 교복 자유의 학교, 학생이 학생답게 존중될 수 있는 학교, 사랑의 매라는 매 자체가 없는 학교, 공부 할 때가 더 즐거운 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되는 학교 등 지금의 학교 모습에서 많이 다른 모습의 학교를 우리들은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들 중 두, 세 가지에도 해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생각을 들어 환경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은 배우러 가는 입장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러 가는 입장에서 만나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상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왕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와라도 친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기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학교로 현재의 학교들이 변했으면 정말 좋겠다.

성적이 높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요즘 우리는 시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들의 놀림.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공부를 좀 못해도 기술이나 노동력만 있으면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얻을 확률은 높다. 하지만 행복지수도 높아질까.

현실을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등을 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잃는다. 늘 긴장하며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1등을 한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덜 할 수 있다. 공부를 못하면 성적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마음이 평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쾌활하게 웃고 건강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은 필요가 없다. 괜히 학생들에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주는 시험을 무엇하러 열심히 보는가. 매달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 때문에 받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현재의 시험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시

힘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활발해 지고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고민거리고 하나 줄어 들 것이다.

우리 미래는 머리만 좋고 시험성적만 좋다고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 지식, 건강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합쳐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이디어상

강병윤 | 충주 충일중학교 1학년

엄마가 빨났다

시험 마침 중 울리고
애들끼리 답 맞춰본다
시험지에 붉은 비 내리고
지금이라도 고쳐본다
과야란 볼펜 꺼내
답 꼬적꼬적 써 넣는다

교실청소 끝나고
머리에 빨난
엄마 생각하니
집으로 못 들어간다

집 앞에서
성적표 바라보며
서 있다
내 마음에
툭툭툭 소나기 쏟아진다.

사랑의 매

숙제를 하지 못했다
학교에 가는 마음이 무겁다
신발장에 도착해서 시간을 끌려고
“한쪽 또 한쪽 놓자”

한 짝을 넣고 한 짝을 넣고
교실 문소리는 오늘 따라
“끼익”
선생님의 귀 따가운
잔소리 같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서
숙제를 꺼낸다
선생님의 무서운 목소리
“딱딱”

사랑이라도 받고 싶지 않은
선생님의 무서운 사랑의 매

아이디어상

김예인 | 충주 성남초등학교 3학년

조회시간

처음엔 공부 안하니깐
신나지만

몇 분후 친구와
모래장난하지
그러면 선생님께
꾸중 듣지

친구와 나는 웃으며
창피함을 숨기지

나중에는
다리 아프지
조회시간 너무 너무 힘들어

왕따 없는 학교

제가 4학년 때쯤 일입니다. 저희 반에는 왕따를 당하는 애 한명이 왔습니다. 그 애는 1학년 때부터 줄곧 왕따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살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생각이 자라지 않는 장애가 있어서였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저도 같이 그 애를 무시하고 왕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같이 왕따를 시키지 않으면 저도 같이 왕따를 당할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 애의 엄마께서 저희 반에 찾아 오셨습니다. 제발 좀 그 애랑 친하게 지내달라며, 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애가 처음으로 안됐다고 생각한 날 이였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마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른 애들도 똑같이 그 애를 괴롭혔고요. 그렇게 5학년이 되어서도 그 애는 계속 괴롭힘을 받았고 이제는 애들이 점점 더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때린다는 걸 못 알아채시는 거 같았고 그래서 애들은 아예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로 차며 때리는 것도 하게 되는데, 저도 그곳에 있었지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서있기만 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애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표정 이였습니다. 또 그렇게 5학년이 지나고 6학년이 되자 애들은 아예 관심도 없듯이 때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구경하는 거시였습니다. 그 애는 이제 애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애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잘 해주면 다른 애들도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에게 좀 더 잘 해줄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

만(게다가 거의 중학교로 올라갈 때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앞으로 중학교 때, 왕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친구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도 해주고 물건도 빌려줍니다.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아직 큰 용기가 없어서 이정도가 최고인 듯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큰 용기를 가져서 친구들도 설득하며 앞으로 왕따가 없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상

위예림 | 충주 남산초등학교 3학년

방학

방학과 계절은
친구인가 봐

방학이 되면
해와 나도
늦잠을 잔다

가을 해는
늦잠을 안 자겠다

가을방학이
없으니까
해는
학교 갈 때는
일찍 일어나
같이 학교에 가는데

방학엔
해도 늦게 뜬다.

희망상

양진영 | 충주 탄금초등학교 1학년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날마다 반장보고
복도에서 똬 사람이라고
공책에 잘
적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보고
칭찬 스티커를 떼라고 하신다.

복도에서 똬 사람은
칭찬 스티커 떼 때
마음에다 연고를 발라야겠다.

희망상

김승환 | 충주 남산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우리교실에
으르렁
호랑이가 왔다

호랑이가
“숙제 안한 놈 이리로 나와”
씩씩 얼굴표정이 무섭다

우리 반에
어여쁜
토끼가 왔다

토끼가
“오늘은 국어를 할 거예요”
살짝 웃는다

하루는 호랑이
덜덜덜 우리는 강아지
또 하루는 토끼
랄랄랄 우리는 다람쥐

우리 반에는
매일 변신하는
선생님이 있다.

우리 반

우리 반
힘센 아이는 엄마오리
약한 아이들은 아기오리다
엄마오리가 달리기를 하러 가면
아기오리들도 달리기를 하러 간다
엄마오리가 놀이터에 놀러 가면
아기오리들도 놀이터로 줄줄줄
이리로 저리로
설 틈도 없이 가는 우리 반 친구들
꽤꽤 목도 아프고
뒤뚱뒤뚱 다리도 아프겠다.

희망상

문예담 | 충주 국원초등학교 5학년

풍선

시끌시끌 와글와글
어수선한 우리 반

선생님이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시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시끌시끌 와글 벽적

그러다 뱅하고 터지는
풍선소리에 순식간에
사방이 고요

선생님보다 더한
힘을 가진 풍선

구름, 덤블링 학교

내가 전학 간 학교는
구름, 덤블링 학교
우와~ 내 심장이
쿵쿵 쿵쿵 뛰다!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와! 내 발아,
작작 좀 해라!
와! 내 얼굴아,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줄 알겠다!

제일 큰 덤블링은
제일 큰 구름과의 지름길
나는 스트레스와
고민을 다 떨치고
하늘로 날아 오른다!

내 맘은 점 하나

없이, 내 표정은
해맑은 아이처럼

제일 큰 구름에서
포근히 잠이 든다

눈 쌓인 학교

학교에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다
참 멋지다

눈 쌓인 학교 어?
학교가 지나보네?
눈은
학교의 이불

학교에 눈의 요정이
붙어있는 것 같다
그만큼 멋진 눈 쌓인 학교

학교는 어떤 꿈을 꿀까?
우리랑 공부하는 꿈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꿈
얘기해 줄래.

희망상

방소윤 | 충주 중앙초등학교 4학년

학교 수업시간

하~암 지루한
학교 공부

눈치 살피며 낙서하네
히히
어째 느낌이 안 좋아 앞을 보니

친구는 낙서해서 혼나고
난 얼른 지우고 밖을 보니
물 양동이 안고 벌서네

불쌍한 친구
책상에 뒹 그렸길래
보았더니

ㅋㅋ...
선생님의 마귀 얼굴
웃음이 절로 나오네.

숲은 또 하나의 학교
충북 충주시 남산초등학교 5학년 6반 김기훈

숲에 가면
나의 더러워진 마음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더러운 공기를 맑게 해 주는 숲
내 마음도 맑게 해준다

숲에 가면
나의 뻗어지는 생각
곱게 뻗은 나무처럼
바르게 선다

숲에 가면
꼭 이 아름다운 숲
'영원했으면.....'
라는 마음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평평 솟아난다.

희망상

김진아 | 충주 목행초등학교 5학년

숲속 교실

이리거나
저리거나
언제나 볼 수 있는
숲속 교실 하나

하지만
우리 학교
숲속 교실은
비밀이 많답니다!

청설모와
다람쥐
새들 모두 모여

라라라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공부를 하지요

우리 학교에만 있는

우리만의
비밀 숲속 교실 친구들도
우리를 닮아 공부를
아주 아주 잘한답니다.

희망상

이도권 | 충주 국원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앞새

뒷동산 나의 학교
가을이 온 지금
우린 졸업식

우리들은 나무 선생님과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어린후배들에게
선물을 남긴 채
자유롭게 날아간다

선생님과 떠나는 것보다
여행가는 것이 좋은지
바람기차 덩석 타는 친구들

참 긴 세월
여러 가지 곤충들도 만나고
시원한 바람과
룰루랄라 콧노래 불던 추억들

나는 나무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바람기차가 떠나는 데도
한참동안 놓지 못했다

“나는 헤어지면 외톨이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있을 래요”
“아니야 이제 자유다 어서가렴.
바람열차를 타고 어서가렴”

선생님은 손을 흔들며
후드득 후드득
소리를 낸다.

희망상

이홍석 | 충주 남산초등학교 6학년

떡볶이

화끈화끈
뿌글뿌글
용암 같은 떡볶이 국물

용암 속에 바위 같은
떡볶이 떡

한 입 먹으며
뜨거워
입에 화상 나고

두 입 먹으면
매워서
입에 불나고

그렇지만 먹어도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 떡볶이.

희망상

오승민 | 충주 목행초등학교 1학년

화장실

화장실은 안됐다.

똥을 먹고 오줌을 꿀꺽하니까

그래도 화장실은 인기가 많아

희망상

김나희 | 서울 송파초등학교 6학년

조금 특별한 학교 - 학교월드

우리 학교는 조금 특별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 반으로
가거든요

우리학교는 조금 특별해요연못이 있어서, 배를 타고
재미있게 놀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조금 특별해요
학교월드에서는 아무나 놀이기구를
탈 수 없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 스티커를 받고,
5장을 모으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우리학교는
항상 행복이 넘치는
놀이공원과 같아요

강제 학습,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강제학습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제학습은 물론 성적을 많이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은 단지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꿈이란, 누구를 괴롭히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한다. 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래서 세계인 모두가 우리나라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이다. 나는 공부에 흥미가 있고, 약간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즐겁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다. 공부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다. 단지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하고,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는가? 누가 시켜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자기에게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일화가 있다. 어떤 할머니가 등록금을 못낸 소년에게 물었다. “애야, 너는 내가 등록금을 대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니?” “우선 학교를 다녀야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할거니?” “좋은 대학을 가야죠.” “그 다음엔?” “좋은

직장을 얻어야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할거니?”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할거니?” “그 다음엔 죽죠.” 그러자 할머니는 “예끼! 이놈아! 너는 죽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냐?” 맞는 말이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강제학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 선진국의 고등학생들은 오후 4~5시면 모두 하교하여 집에서 자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놀이를 하거나 자신의 취미와 흥미를 최대한 살리는 활동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고, 노벨상을 받는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밤 11나, 12시까지 공부를 강요당한다. 거의 세계 최장의 공부시간을 자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세계 명문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다. 외국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뒤쳐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효과가 커진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말릴 수가 없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고등학교 때에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대학을 다녔다. 그러나 올바른 신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 법률공부를 해서, 가난한 흑인층, 빈민층의 사람들을 무료 변론해 주며, 인기도가 상승하여,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고등학교 생활까지 봐서는, 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우치고, 노력하니까,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에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놀고, 먹고, 공부도 안하고 학점만 따서 졸업만 하려고 한다. 즉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다. 강제학습은 자율성을 무시한다. 게다가 학생의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다.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까지 피해다.. 하지만 몇몇의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소위, 똥고집이라 한다. 아직까지도 강제학습을 해야만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져, 좋은 대학을 많이 가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강제학습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강제학습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강제학습이 하기 싫다. 우리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해달라 등의 의사를 표출한다면, 충분히 강제학습은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중심인데, 뭘들 못 바꾸겠나? 이 악습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몇 년 안에 올 것이다.

지.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0-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선생님이 생각한다.
체육선생님은,
“학교라는 곳은 지, 정, 의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란 대단한 거야.”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1 결심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몸에 있는 멍 자국, 칼 자국에서 이제야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나는 책상에 A4 용지를 앞에 두고 앉아있다.
-달각-
펜 뚜껑을 여는 소리가 오늘따라 크고 섬뜩하게 들린다.
이미 결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온다. 손등에 무언가 떨어진다. 울고 있는 걸까.
계속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액체의 감촉이 그다지 좋지 않다. 왜 울고 있는 걸까. 이제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야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혜민, 왜 울고 있냐. 도대체 너란 인간은..... 왜.....”

혼자 중얼거리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삼켜본다. 계속해서 삼켜보지만 도저히 삼켜지지 않는다.

“흐읍, 흑,- 하.....흐읏- 으..흐읍... 끄읍, 꺾, 하아..... 흐...기, 흐으...
스”

결국 이렇게 난, 이십분 가량을 혼자 오열한 후, 마음을 다시 잡아야 했다. 떨리는 왼손으로 하얀 A4용지를 붙잡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오른손을 겨우 가늠서 한글자한글자 써내려갔다.

-있잖아 말이야, 벗어나고 싶어. 도대체 뭐가 잘못 된 거야? 내가 뭘 어쩔거야?

왜 내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지? 개새끼들. 인간 말종 같은 새끼들.

사람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야. 어이없지. 날 보는 수많은 눈들 중에, 나를 믿는 눈은 하나도 없었어. 나를 감싸주는 눈은 하나도 없었어. 너희들이 뭐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씨발것들. 미쳤어. 죄다 미쳤어. 꺼져버려. 좇같은 세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씨발, 개같아. 돈에 미치고, 성욕에 미쳤어? 돈이면 다 돼?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고. 너희가 날 이딴 식으로 대하고선,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고.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죽여 버릴 거라고 !!!!!!!

엄마, 아빠, 미안해.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 더 이상 믿을 곳이, 의지할 곳이 없어. 혜경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못난 언니라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미안해, 이제까지 고마웠어. 정말. 엄마, 아빠, 혜경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정말 미안해-.

안녕. -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교과서 사이에 A4용지를 끼워 넣었다. 또 괜스레 눈물이 떨어진다.

걸혀진 내 스웨터 소매 밑, 앙상하고 멍투성이에 칼에 베인 흉터가 많은 손목이 보인다. 손목에 선명히 있는 칼자국은, 자꾸만 아픈 기억들을 되새김질한다. 내

가 나에게 입힌, 마음의 상처이다.

죽을 자신이 없어서, 이제껏 내 몸에 상처 내는 일들밖에는 하지 못했다. 나라는 인간은, 정말 나약하기까지 하다.-

-털썩-

방문을 열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손목을 부여잡고 그렇게 또 몇 십 분을 울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찰각, 끼이익-

엄마와 아빠는 안방에, 동생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집 거실을 눈에 새기며,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해본다.

“안녕-”

-철컱, 끼이이익! - 방문을 열 때보다 소리가 크다.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황급히 뒤를 돌아 누군가 깨어나지는 않았나 확인했다. 다행스럽게도, 평온한 우리 집은 조용했다.

- 찰각, 빠리릭-! - 현관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흐으, 흐-기....흐으, 흑, 끄으, 하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계단을 올랐다.

13층, 14층, 15층.....

-철컱-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공기가 내 몸을 때렸다.

“후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어 본다. 생각보다 바람이 센 이 곳, 그래. 여긴 옥상이다 -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편하다. 멍 자국, 칼자국과도 이별이다. 아직 팔꿈치에 앉아있는 딱지를 뜯어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흘렀다. 따갑다. 피를 손으로 대충 닦아 냈다. 그리곤 옥상 난간을 잡고 바람을 만끽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것 같다.

밑을 내려다보니, 우리 학교가 보인다. 파랗고, 빨간 네온사인불빛들도 보인다. 또 다시 모든 게 흐릿해졌다.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쳐

본다.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도대체 뭘 어쩐 거냐고!!!!!! 내가 뭘 잘못 한 거냐고!!!!!! 좇같은 세상아, 씨발, 그래. 오늘로 너랑도 끝이다. 두고 봐! 내가 나중엔, 내가..... 흐아아!!!! 흐으, 하- 흑..... 끄으, 흐으.....-”
결국 눈물에 내 목소리가 묻혀버린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행복했던 순간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엄마, 아빠, 혜경이, 그리고.....

학교 -.

#2 어릴 적, 행복.

그래도 내 어릴 적은, 꽤나 행복했었다._

행복했던 엄마와 아빠, 매일 웃음이 넘쳐나던 우리 집.

그 와중에 나는 무럭무럭 잘만 자라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와 아빠의 월급이 합해서 30만원인줄 알았던, 그런 아이였다.

그리고선 아무것도 의심치 않았다.

E-마트에 가서는

“여보, 20만원이랑는데?”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음식점에 가서는

“네, 11만원 되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예쁜 언니를 보며,

“어째서 월급은 30만원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라는 단순한 의심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왔다.

그리고선 엄마 아빠는 늙둥이를 보셨다. 내 나이는 그때 7살이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난 여기 서 있다._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걸까. 또 다시 불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내가 10살이 되어갈 때 즈음,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아파트 4층.
우리 옆 동, 18층에 살던 여자아이와 나는 정말 친했었다.
서로 누구하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서로를 좋아했다. 그렇게 나는 친구라는 정
말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이사 소식이, 우리 둘에겐 정말 큰 슬픔이었다.
슬슬 이사 갈 집으로 출발할 때가 되어, 한참 친구와 작별인사를 하는데 위쪽에
서 가늘고 툭 높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보니, 엄마였다.
“혜민아, 어서 들어와! 거기서 뭐하는 거니?”
“아아, 엄마. 응, 갈게요!”
라고 소리치고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선 눈물기
가득한 눈으로 생긋- 웃어보이고는 뒤돌아서 눈물을 닦고 아파트 4층을 한달음
에 뛰어 올라갔다.
그렇게 나는, 친구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내 마음 깊이 새겨준 사람과 거의 울
다시피 하며 떨어져야했다._

#3 새로움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_
나는 제법 적응을 잘 해 나갔다. 친구들도 좋았고, 새로 이사 온 집도 그다지 나
쁘지 않았다.
단지 나쁘다면 이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많이 좁았다는 것 뿐.
그리고 여기서, 이전에 살던 곳과 같이 그렇게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기쁨
에 들떠있었다.
학교도 좋았었다. 한 번 더 강조해 보자면, ‘좋았었다.’
어떤 날은 필통이 없어졌고, 어떤 날은 교과서가 없어져 있었다.
몇 일 후 보게 된 내 필통은, 어떤 남자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 필통 내꺼야, 이리 줘.”
“싫은데?” 라고 말하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짓는 그 남자아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꺼란 말이야.” 라는 식의 대화가 계속해서 오고갔다.

“아, 나 이제 이 필통 내꺼 할래.”

라고 말하는 그 남자아이. 그 순간 나는, 결국 울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 와중에 들려오던 낯선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나를 더 화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아, 강혜민 너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라고 빈정대며 말하는 그 여자아이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둘씩 여자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혜민, 너 왜자꾸 울어 짜증나게.” 라며 심하게 짜증내는 아이들.

지금 생각하니, 고작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의 말투 치고는 너무나도 차가운. 차갑고 쌀쌀맞음엔 어른아이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솔직히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흐음, 왜 저 남자애가 내 필통을 끄우, 가져갔는데, 하, 흐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라고 울면서 그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다. 찢렸는지, 나에게 필통을 돌려주고는 도망가던 그 남자아이를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어느 날은, 그 여자아이들 중 한명이 나에게 오더니,

“혜민아, 우리 혜민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지.?”

라면서 나를 꼬옥 껴안아주더니 등을 토닥겨려준다. 나는 그게 기뻐다. 친구라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으응, 고마워.”

라고 웃으며 그 여자아이를 같이 껴안아 주었다.

하지만 알고보니 등을 토닥겨린 이유는, 테이프를 더 잘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하루 온종일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쪽지를 등 뒤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다.

반 아이들이 날 보며 키득거리던 이유도 알 것 같았다.

내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지만,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또 어떤 날은, 나를 자전거 뒤에 태워주겠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아, 이 아이들이 내 친구인가보다.’ 하고 환히 웃으며 자전거 뒤에 올라탔다.

커브를 도는데 그 여자아이는 한쪽 발로 땅을 짚고,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나는 확실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랐었다.
왕따- 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걸보면.

이상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나의 어떤 점이 저 아이들 눈 밖에 난 것일까.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내가 커가면서 심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무언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 스스로도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던 친구만큼 소중한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가 같이 있는 게 즐거웠고,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6학년, 둘 다 3반에 배정되고서는 부등켜안고 날뛰던 날이 떠올랐다.

서로가 3반인 것을 확인한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다.

#4 나 혼자서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에게 자신의 전학소식을 전했다.

우리 둘은 떨어지기 싫어서 애를 써 보았으나, 어떻게 될 리가 없었다. 그렇게 난 내 소중한 사람을 또 잃었다.

6학년 말, 또 나에 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재네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 아냐?” 라는 한마디가 내 6학년을 망쳐놓았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저 말을 듣고는, 엄청나게 과장시켜 그 떠들던 아이들에게 전달했고, 나는 또 청소시간에 그 여자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싸움을 해야 했

다. 말이 말싸움이지, 난 일방적으로 그 여자아이들에게 욕을 먹어야했다.-

“우리가 좀 떠들었다고 뒤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욕을 해야 돼?”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왜 뒤에 가서 떠들어?”

“니가 생각을 해보라고. 앞에 와서 당당히 말하는 거랑 뒤에서 존나 욕먹이는 거랑 어떤 게 더 기분 나쁘겠냐.”

결국 내가 사과를 해야 했고, 그 여자아이들은 날 보며 비웃었다. 그리고 자기들 끼리 웃으며 떠들었다.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

그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나는, 매번 반에서 곱돌았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이 짧은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반에서 두 여자아이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또 다시 혼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나의 짧은 행복을 앗아간 현상은, 고작 두 명이라는 극소수의 여자아이들에서 세 명으로. 그것은 또 다섯 명으로, 언제부터인가는 반 전체로 확산되어있었다.

“너 같은 성격 정말 싫어.”

“그런 성격 니가 제일 잘 알텐데, 왜 안 고쳐 ? 꼴볼건.”

“너 말투 띠꺼워. 좀 말투 고칠 수 없어?”

“너 인간성이 왜 그래.? 인간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따라하지 마. 너 자꾸 누구 따라하는데, 그거 진짜 지겹거든?”

-따라한 적 없었다. 내 성격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이 여자아이들뿐이다. 내 성격이 어떻다는 걸까. 내 인간성이 어떻다는 걸까. 애네들, 도대체 내 어떤 면을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것이 시발점이라면 시발점일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고서, ‘아, 왕따인건가-’라고 느낀 때였으니까.

이때 내 나이 14살. 현재 열일곱이니까 어느새 3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3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나도 어이없고 쪼잔하지만, 중학교 입학 후 첫 1년을 상처와 눈물로 가득 채워준 그 아이들을 가만히 둘 수도 없다.

“빌어먹을.”지금 생각하니 욕이 저절로 나온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난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전혀 - 없다.

여기는 옥상, 내가 열넷 이라는 어린 나이에 입었던 상처를 다시 되돌리고 있다. 바람이 날 위로하듯,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려 주는 것이 기분이 썩 괜찮다.

- 중학교 1학년, 풋풋함이 묻어나는 게 예쁜 나이. 그런데 그런 소중한 1년이 나에게, 더럽고 짜증나는 1년일 뿐이었다.

체육을 하고 돌아오면 책상위엔 모래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었고, 급식에 곱이 나온 날이면 씹다 뺨은 곱과, 곱껍질이 너저분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었다.-

이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딱 하나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면, 저 아이들의 눈에 다시 드는 방법밖엔.

하지만 그 방법이란 것을 실천하자,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따름이었다.-
어느 날 청소시간.

“야 개 존나 웃기지 않냐?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 짜증나 미쳐 진짜 킁킁킁”

“아 그니까 말이야. 나 개 완전 싫어. 아 존나 마음에 안들어—”

“킁킁 그년이 다 그렇지 뭐. 별 다른 거 있겠냐. 아 짜재밌어 푸하하하!”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여자아이들을 쳐다보았다.

나를 마구 쳐다보며 저런 말을 하다가, 내가 돌아보니 자기들끼리 눈치를 주고받는 게 내 눈에도 다 보일 정도였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야아... 개개, 며, 몇반이, 이더라.? 4...바, 반 이었나?”

말을 심히 더듬으면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눈에 환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이젠,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싫어져 버린건가.-’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나로써도 더 이상 그런 뭐 같은 아이들과 친구하고 싶

지 않았다.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할 바에야, 차라리 나 혼자 왕따가 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

#5 담배

1학년 말,

난생처음 담배라는 것을 입에 대보았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가 익숙하지 않았다.

눈앞에 빙글빙글 돌았고,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재채기와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것도 슬슬 적응되어갔고, 이렇게 저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
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술, 담배를 하고 있으면
즐거웠다.

그날도 어느 날과 같이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있었다. 난 그 상태에서 어떤 남
자아이와 둘만 있었다.

그리곤 곧, 그 남자아이는 나에게 입을 맞춰왔다. 내 입속으로 무언가 들어왔고,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을 더듬었고,

교복 조끼가 벗겨졌다. 교복 셔츠의 단추가 풀렸다. 계속해서 몸에 힘을 잔뜩 주
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다. 그 공포 속에서 도망
친다는 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 남자아이가 집에 가고, 나 혼자남아 평평
울었다.

내가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저
앉아 울고만 있었다.

힘겹게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미칠 지경이었다. 내가 더럽게 느껴졌고, 내 몸에게 미
안한 마음. 그리고 떠오르는 그 남자아이의 얼굴.

“씨발새끼.... 개만도 못한새끼.....흐웃....흑.....흐흑....”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다 -

더군다나 난 운이 좋아서인지, 집이나 학교에서는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걸리지 않는다는 100%의 확률은, 나에게서 담배와 술을 멀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생긴 이후, 난 계속해서 찢리기 시작했다.
담배를 피우면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술을 마시면 오히려 구토증세가 심해졌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나에게 어느 순간 남자 공포증이라는 것이 생겨있었다-

그래서 난 또, 스스로 이 아이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혼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렇게 난, 중학교 1학년 초반에는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날 믿어준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뺨뺨어져갔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내가 나 자신을 잡았다. 그렇게 날 다시 다스려 갔다-

그리고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날이 갈수록 손톱을 물어뜯고, 다리를 떠는 불안증이 심각해져만 갔고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았다. 오직 딱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인간은 절대 믿을게 되지 못한다.”

어렸을 때, 비록 왕따인 것은 몰랐지만 저 아이들이 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알았던 것일까.

괴롭힘 당할 때의 기분, 상처. 중학교 1학년 때의 상처. 그리고 2학년 때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한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어간다.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이 되었던 여자아이들 중, “윤지혜”“최가원”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다.

나는 혜민이, 가원과 굉장히 친해져갔다. 지혜는 그새 담배가 습관화 되어있었고, 가원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즐거웠다. 담배든 뭐든 상관없었고, 서로를 믿었고, 그렇게 우린 행복했다,

“혜민아!, 내일 학교 같이 가. 알았지?”

라고 학교를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가원이 있었고,
“혜민아, 그래서 어제 내가 너무 속상했던 거 있지.....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보여-”

라고 나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주는 지혜가 있었다.
지혜와 가원이. 난 이 아이들을 좋아했고, 이 아이들도 날 좋아하는 듯 했다.
우리 셋은 평소에도 붙어 다녔고, 난 이 일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1학년 때 그 여자아이들은, 여전히 날 싫어했다-. 혹시나 복도를 가다가 나와 마주치면
“어? 미친년이네?ㅋㅋㅋ” 하고 자신들끼리 키득거리며 지나갔고, 내가 그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저 씨발년은 왜 온 거야’하는 눈빛으로 -.

지혜와 가원은 나와 급속도로 친해져갔다. 하지만 역시 이 아이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술도 마찬가지로였다.

“혜민아, 담배 한 대 줄까?”
“혜민아, 술 안 마실래? 왜 이 좋은걸 즐기지 않는 거야?”

라고 묻는 가원과 지혜에게 나는 살짝 웃으며
“아아..... 별로 안 당겨서.” 라고 말했다.

지혜와 가원은 이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나를 빼놓고, 둘이서 떠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연속되자, 나의 위치는 확실해져갔다.

“가원아, 지혜야. 오늘 우리 집 놀러 안 갈래?” 라고 묻는 나에게
“헐 킁킁, 우리가 너랑 왜 놀아?” 라고 대답하는 지혜가 예전의 지혜 같지 않았다.

#6 자살기도

이러던 어느 날, 지혜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리고선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가원을 포함한 지혜와 친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아이들이 몰려있었다.

“야 강혜민. 너 뒤에서 나랑 가원이 씹고 다니냐?”

“하.? 난 그런 적 없는데 말이야.”

“구라 까지마. 킁킁 나 개네한테 얘기 다 들었거든?”

개네. 짹이는 사람은 있다. 1학년 때 그 여자아이들.

‘설마. 아무리 날 싫어한다 해도 헛소문을 퍼트렸을까.’하며 캐묻지 않았다.

“너 예전에 우리랑 좀 친했다고 잘나가는 줄 착각했던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거든? 킁킁.”

이라고 날 비웃으며 말하는 가원이는, 이미 가원이가 아닌 것 같았다.

나와 모르는 사이인 지혜의 친구들도,

“야. 난 니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너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ㅋㅋㅋ”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해라? 지혜를 뒤에서 잘도 씹고 다녔구나. 아주.”

라며 나에게 욕을 해댔다. 저주스러웠다.

-짜악-

하는 소리가 들리며, 뺨이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 씨발년. 뭐하자는 거야 지금.” 이라고 담배를 물며 말하는 여자아이는, 지혜였다.

난 당황해서,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짜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반대쪽 뺨에도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 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났다.

“미친년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야.”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가원이였다.

예전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곳에서 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난 이날, 교복 마이가 찢겨져야 했다.

“엄마. 나 마이 잃어버렸어.”

“잘한다? 교복마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알고서도 잃어버려 ?!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마이를 잃어버려 ?!”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언제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냐? 공부나 열심히 해.”
“응.”

-찰각-

방문을 닫고 들어왔다.
숨을 죽였다. 그리고선 잔뜩 참아가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선 일어나서,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위에 앉았다.

그리고 연필꽂이에서 샤프를 꺼내 든 순간,

연필꽂이에 꽂혀있는 칼로 손이 갔다.-

눈을 떴다. 네온사인은 아직도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
옥상 난간을 잡고 바람을 만끽하며 떠올리는 추억들. 그리고 바보같이 지금에서야 후회도 해본다.
‘바보 멍청이 강해민. 이때 네가 네 손목을 긋지만 앓았어도, 네 손목 참 예뻐할 거야.....’

#7 칼, 그리고 피.

-드르륵- 칼 끄트머리가 조금 보일정도로 칼을 밀어냈다.
‘죽을 수 있을까. 사후세계는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목을 긋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죽지도 못한다고 들었어.....’
별 잡생각을 하고 난 뒤, 책가방을 열어서 부러진 연필하나를 쥐어들었다.
그리고선 깎아나가기 시작했다.
-마스락, 마스락-
연필을 깎는 내 손을 보고 있자니, 손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손톱은 뜯을 대로 물어뜯어서 거의 없어진 지경. 그리고 오른손 중지와 약지엔 노란 돌리밴드가 붙어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하얗고 기다랗고, 발암확률이 높은 물체도 잡았었다.

이때, 내 나이 열여섯이었고, 이제 슬슬 모든 것을 뚜렷하게 알아가고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 진동이 연속해서 오고 있었다.

연필을 깎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전화가 온 걸까.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확인했다.

.....전화가 아니다. 이걸 문자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계속해서 울려대는 진동과, 핸드폰에 뜨는 -0000- -1234- -0101- 이라는 번호들.

하야, 진동이 연속해서 16번을 울리더니 멈췄다. 그리고, “새로 도착한 메시지가 16개 있습니다.”라고 친절히 말해주는 핸드폰.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나대지마.ㅋㅋㅋ너 잘나가는 거 아니거든? 뒷담까고 다니니까 좋니.? 미친년ㅋㅋㅋ”

뒷담을 까고 다닌 적도, 내가 잘나간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난 도대체 뭘 잘못된 것 일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걸까.

“왜.....왜 다 날 싫어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된 거야..... 후우.....”

혼자 가볍게 중얼거리고는, 눈에서 액체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눈에 안간힘을 주고는 버텼다.-

“괜찮아, 강혜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연필을 깎던 칼은, 어느새 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다리가 떨려왔고, 손에 경련이 일어났다. 손목에 쓰라림이 느껴졌다. 화끈거리며, 갈라진 살 틈새로 붉은 피가 배어져 나온다. 아주 작은 상처, 그렇지만 화끈거리기가 나쁘지는 않았다.

이때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도 좋을 뻔 했다. 이 때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 있을 이유 따윈 없었을 테니까-.

나는 이 이후, 내 손목에 엄청난 상처를 가했다. 상처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그 여자아이들의 폭력 횡수도 함께 늘어났다. 학교에서 맞고 들어와서. 잔뜩 울고. 내 손목을 긋고.

이 세 과정의 연속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일찍 일을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니, 이런 것을 알 리 없고, 혜경이는 나보다 늦게 나가서 일찍 들어와 먼저 자고 있으니, 또한 알 리 없었다. 알리기 싫었지만,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하는 가족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동복을 입을 때는 자유롭게 밴드만 붙이고 다녔지만 하복을 입을 때는 정말 끔찍 그 자체였다.

그 폭폭 찌는 날, 나는 손목에 아대를 하고 다녀야 했다. 그 후, 몇 번이나 그었던 내 손목은 점점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서 도무지 관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았다.

엄마가 묻는“혜민아, 한 여름에 왜 손목아대?”라는 말에도,
“아, 그냥 테니스부 하나 들었어.”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가늘고 앙상한. 그리고 상처가 나 있는 내 손목을 붙잡고 밤을 새워 울었다.
‘혜민아, 너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누구인거야. 왜 니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지?'

나말이야, 어릴 때부터 예쁜 팔찌를 갖고 싶었는데..... 큐빅이 여러 개 박힌, 예쁜 팔찌를 하고 싶었는데..... 아대라니. 손목아대라니. 나, 견딜 수 있어. 혜민아, 넌 견딜 수 있어. 무너지지 마, 괜찮 아.....괜찮아.....’
홀로 이런 생각을 밤새도록 하며, 내가 울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금방 무너져 버릴 듯한 모래성 같은 나 자신이, 툭-하고 건드리면 깨져버릴 듯한 유리거울같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아서 이제는 우리학교 내에서 “강혜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은 커져있었다.

“야야, 혹시 강혜민알아?”라고 묻는다면,

“아 개? 개 어떡하다 그렇게 된 거래? 완전 폐인 다 됐다며?”라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었다.

난 오늘, 또 화장실에서 험한 꼴을 당했다. 자욱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셔야 했고, 걸레를 빨았던 물에 교복이 적셔져야 했다. 더러운 걸레냄새가 났다. 그리고 머리가 잘렸다. 잘린 머리카락들은 태워졌다.

‘살려줘.....도와줘.....더러워.....’

#8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들이고,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다.

대인공포증을 만들어 준 것도 너희들이고, 손톱 뜯는 습관을 심어준 것도 당신들이다.

당신들 덕분에, 난 대인관계에 자신 없어졌고, 누군가에게 상처주지 않았나, 소심하게 살아야 했다.

또 너희들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해야 했고, 남자와 사귀는 것을 기피했다.

모든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나는, 나는.....왜 이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했나?

내가 당신들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독설보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상처가 더 크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독설이 훨씬 많다.

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들의 독설과 협박, 그리고 상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거야?

힘들었던 7년.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 시간이었다.

잘들 있어라. 얼마나 잘사는지 두고 보자.

#9 내일 아침이면,

바람이 멎었다.

네온사인 몇몇 개가 꺼졌다. 몇 시 쯤 된 것일까. 4시 ? 4시 반?

지금쯤 우리가족들, 잘 자고 있으려나.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다시는 나를.

나를-.....

지, 정, 의를 가르치는 학교_

-#0-

#1 결심

#2 어릴 적, 행복

#3 새로움

#4 나 혼자서

#5 담배

#6 자살기도

#7 칼, 그리고 피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9 내일 아침이면,

‘입학사정관제’ - 점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자

‘입학사정관제’.

점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자.

‘학교’

일정한 목적·교육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국어사전에 규정된 학교의 정의이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새 학년 새 학기만 되면 1년간 함께할 친구들과 선생님은 누가 될까하는 기대와 궁금증으로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그런 기대는 어느새 사라지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학습량에 새 학년이 그리 반갑지 않은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학생들에게 있어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공간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고등학생에 있어서 학교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대학진학을 위한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녀야하는 곳이 된지 오래되었다. 중학생 역시 외국어고,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원에서는 공부를, 학교에서는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추진된 국제중학교의 설립 인가 이후 초등학생들 역시 무한 입시 경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그나마 입시 경쟁이 덜한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오직 대학진학을

위해 3년을 공부만 해야 한다.

직장인들보다 빠른 아침시간에 등교해 하루 8교시의 정규수업,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반강제적 타율학습, 법으로 규정된 놀 토와 방학기간에도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아야한다. 어디 그 뿐 만이겠는가. 3년간 12번 치러야 하는 중간-기말고사라는 피 말리는 전쟁, 쏟아지는 수행평가와 각종 모의고사는 고등학생들을 3년간 입시기계로 전락시켜버린다.

이 모든 것이 서열화 된 한국의 대학 속에 명문대 진학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내신, 수능 등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대학입학전형 방식의 문제점이 낳은 결과이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대학평준화, 수능폐지 등은 아직 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고 시급히 추진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 실시된 '입학사정관제'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수능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으면 명문대 진학이 확실시되는 한국의 입시와는 달리, 미국대학은 SAT(미국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학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봉사정신과 리더십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불합격 시키는 한편 시험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나 다양한 특기능력을 보유해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점수위주 선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 많다. 같은 대학에 지원한 반 1등 학생이 떨어지고, 잠재력을 인정받은 2등이 합격한다면 1등 학생과 그 부모는 당장 입학사정절차의 투명성을 공개하라며 대학 입학처를 찾아가 항의할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한 교육환경이 엄연히 다른 현실에서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대학입학전형, 그 속에서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매일 학교와 학원, 독서실과 집을 오가야하는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학교 교육이 대부분 시간을 앓아서 공부하는 국영수중심의 수업이었다면, 이제부터 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다양한 특별활동, 방과 후 수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입학전형이 내신과 수능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을 뽑았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기에 일선 학교에서도 그에 대비한 학교별 다양한 수업과 활동이 실시 될 것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학급반장과 학생회장 선거에도 학생들의 앞다퉈 출마가 예상되고,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교내 동아리활동과 방과후 수업에도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눈에 들기 위해 자신만의 다양한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지망 학생의 경우 다방면의 독서는 물론 다양한 문학상과 백일장에 도전해서 자신의 문학적 기량을 개발할 것이며, 영어영문학과와 제2외국어학과 지망 학생이라면 TEPS, JLPT 등 외국어 영어시험 자격증 준비를 통해 해당 외국어분야에 대해 입학 전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이다. 또한 양로원,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오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이라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회복지학과 입학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학생회장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사회활동을 펼쳐온 학생들도 대입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예체능 분야에 끼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해당분야 특기자 선발 전형도 확대될 것이다.

대입제도는 그동안 점수위주의 선발에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특정분야나 다방면에서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라도 수능 점수가 낮으면 대학입학선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성균관대학교 '자기추천자'전형의 경우 2000년도부터 올해 10년째 실시하면서 점수에 가려진 특정분야 우수학생을 선발해왔다. 국민여동생 영화배우 문근영, 인터넷 소셜 베스트작가 귀여니, 최연소 벤처기업가, 고교생 발명왕 등이 자기추천 제도를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영광을 맛보았다.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의 적

성과 소질, 장래희망이 다를뿐더러 자신이 추구하는 길 역시 제각기 다를 것이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흔히 청소년들을 가리켜 ‘미래의 주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성세대와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은 어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학가서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된다. 청소년은 분명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임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삶의 주인공으로서,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실시된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대를 통해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기존의 입학사정방식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 및 인권향상을 기대해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

학부모 교육운동단체로서 1989년 설립되어
2008년 현재 전국에 14개 지부 40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형성과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과
우리 아이들의 민주적인 교육환경 개성을 위한 사업, 학생인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과 연구 사업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일상적인 교육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고자 활동을 전개합니다.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 활동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교육위원회 참관활동

□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올바른 소통과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열린 교육, 민주적 학교환경을 위해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올바르게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활동, 교육 및 상담
- 교육자치 활동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불법찬조금 근절과 예방 활동
- 학교급식의 질 개선 운동
-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만들기 운동
- 교복공동구매 운동
- 학교 안 자원봉사활동

□ 학부모로 살아가기!! 자녀와 함께 삶을 배우고 나누는 활동

아이들과 함께 크는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전국의 지부 및 지회에서 학부모의 건강한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교육의 지혜를 일깨우는 강좌, 학부모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월례강좌
- 예비 학부모 교실
- 진정한 부모역할에 관한 교육 - 자녀와의 대화법, 성교육 등
- 각종 소모임 활동 : 글쓰기, 동화읽기, 미술, 풍물, 역사, 영어 등
-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
 - 학생인권 증진 사업 및 학생체벌금지 운동, 학생회 법제화 지원
 - 어린이날 행사, 방학프로그램 운영, 역사기행, 체험학습 등

□ 학부모신문 발행

학부모들의 우리교육에 대한 관심과 주장,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을 사회에 널리 알려 학부모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매월 「학부모신문」
- 지부지회 소식지 발행
- 각종 토론회, 행사 자료집 발간

□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 활동

우리아이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활동에 전국의 지부 및 지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자녀지도, 학교의 관계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 후속활동을 벌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학부모는 우리회 주최의 상담원 교육을 받은 후 상담 활동에 참여합니다.

- 불법찬조금과 촌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참여, 학습 및 진로지도,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인권보호 법률자문단과 협력)
- 전화상담, 면접상담,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사이버 공개·비공개 상담

□ 학부모 상담원 교육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학부모는 우리회 주최의 상담원교육을 받은 후 상담활동에 참여합니다.

- 상담활동 : 전화상담, 면접상담, 홈페이지 학부모상담실 사이버상담
- 상담관련 후속활동: 학교나 교육당국에 진정, 건의
- 상담원교육
 - 현재 1기부터 12기까지 교육(매년 교육실시) / 상담원으로 활동
 -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료 후 집단 상담과 상담실습을 거쳐 활동 시작
 -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상담 소모임 운영
 - 끊임없는 토론과 슈퍼비전을 통해 자기발전 모색
 -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2인 1조로 고정요일 정해서 상담

우리의 다짐

□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제 5회 가고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공모전
벽을 넘어, 인권으로

발 행 처 |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 행 | 윤숙자
발 행 일 | 2008년 12월 29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전화번호 | 02.393.8900
팩스번호 | 02.393.9110
홈페이지 | <http://www.hakbumo.or.kr>
이 메 일 | hakbumo@chol.com